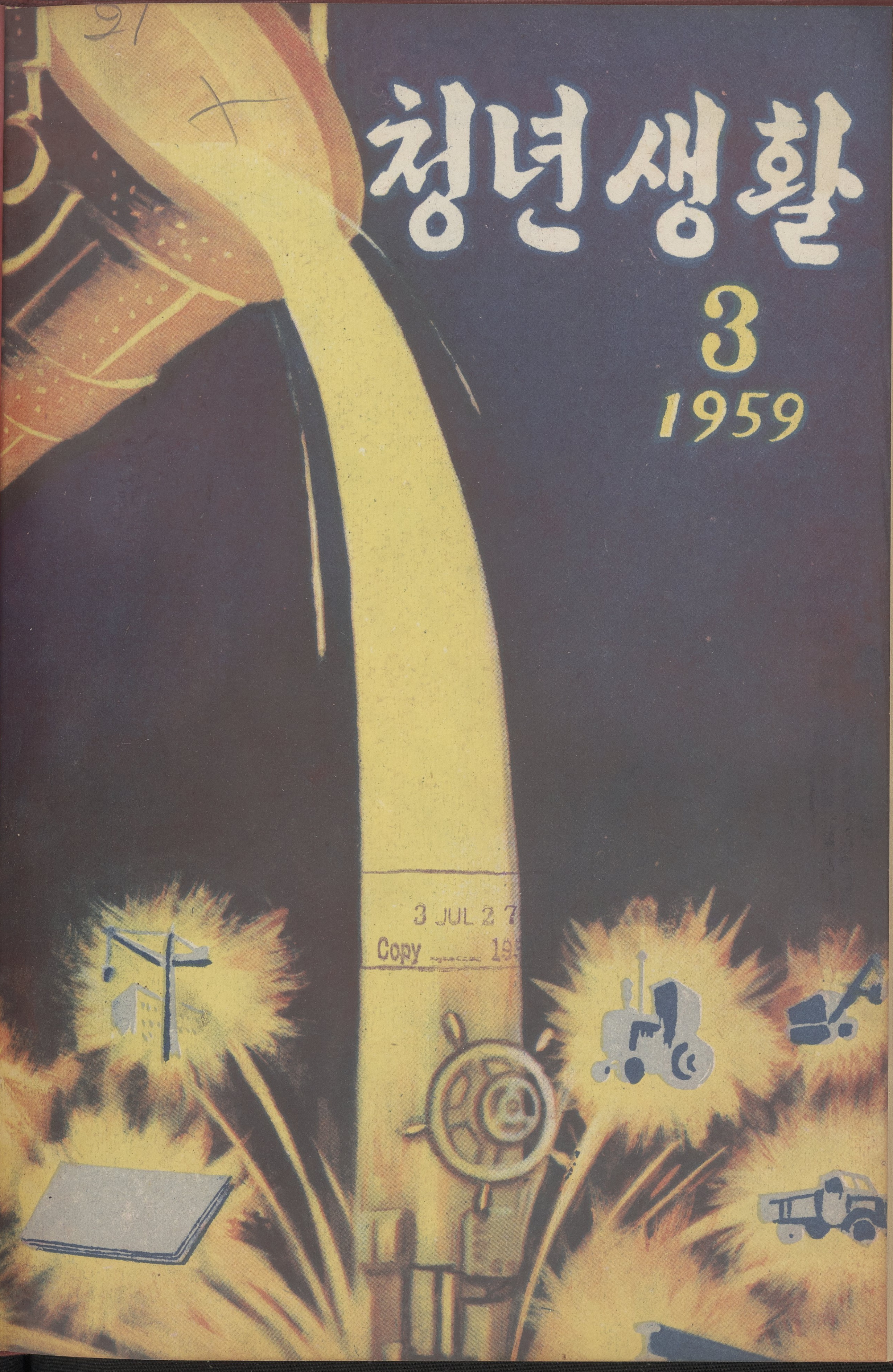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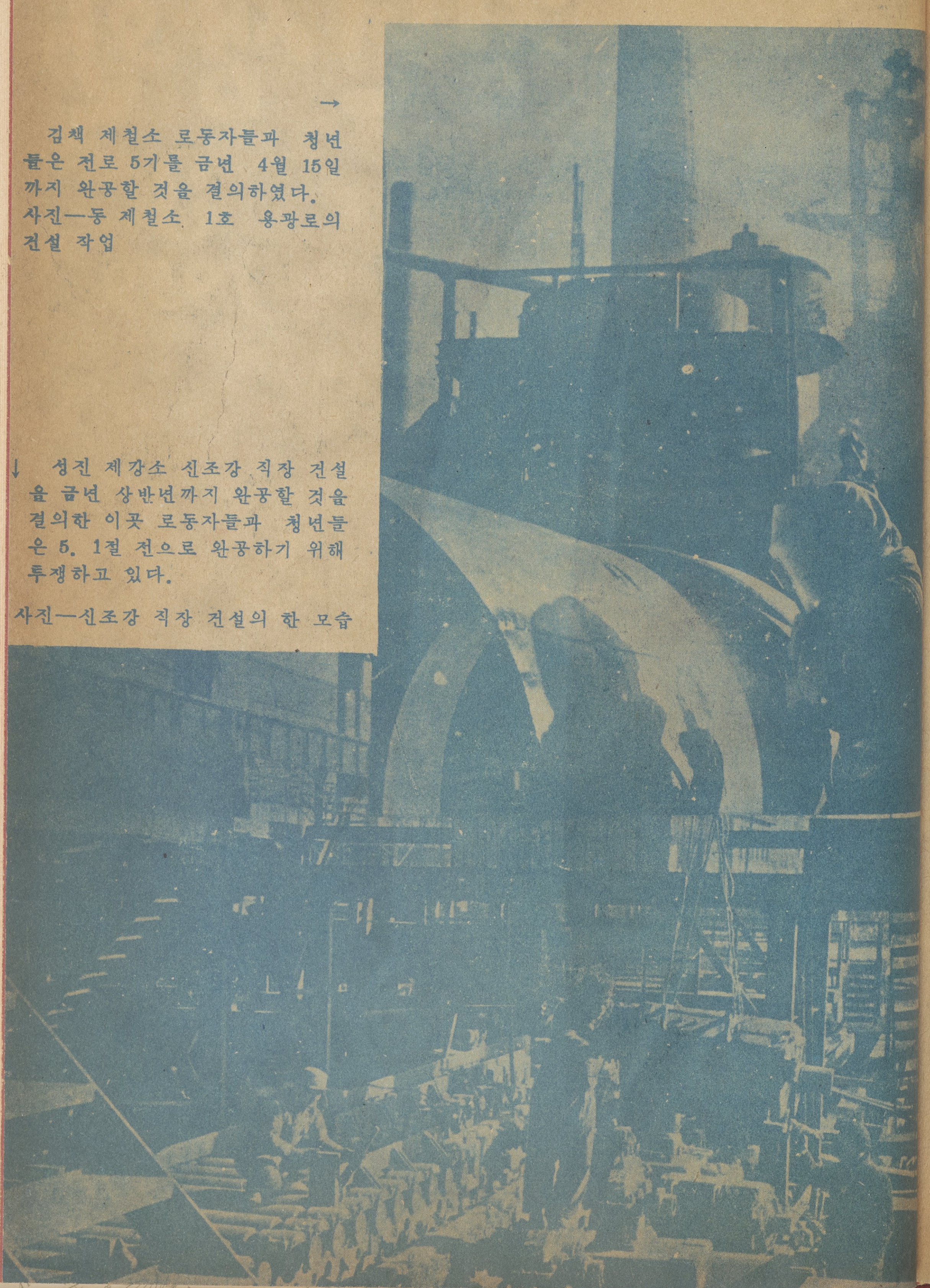
청년생활

3

1959



천리마로 달리는 청년 사회 주의 건설자들



→ 김책 제철소 로동자들과 청년들은 전로 5기를 금년 4월 15일까지 완공할 것을 결의하였다.
사진—동 제철소 1호 용광로의 건설 작업

↓ 성진 제강소 신조강 직장 건설을 금년 상반년까지 완공할 것을 결의한 이곳 로동자들과 청년들은 5. 1절 전으로 완공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사진—신조강 직장 건설의 한 모습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차 례

청년들은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혁신을 일으키자……(2)
무엇이 제품의 질 제고를 방해했는가……………………………………(4)
혁명은 긴장, 경각성, 규률을 요구한다. ……………………서 철(8)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중에서
위기 일발……………………………………………………오 준옥(11)
항일 빨찌산의 고상한 품성……………………………………김 룡연(14)
정치 강좌; **당 중앙 위원회는 우리 혁명의 심장이며 뇌수이다**… (18)
조국의 자연 부원을 보호 증식시키는 것은 청년들의
애국적 임무이다. ……………………………………………………(22)
2만명의 대렬에 들어 서기 위하여……………………………민 병림(26)
공상과 대담성 ………………………………………………김 병훈(28)
체육 스포츠 사업의 군중화를 위한 당 정책을 관철 시키자 ……(32)
봄철의 농촌 위생 시설 개조…………………………………………(34)
종교 도덕의 반동성……………………………………………백 원규(36)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 공업 제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할 날은 멀지 않았다. ……………………………………………(40)
식민주의를 반대하여……………………………………………최 응섭 (42)
련쇄만화; 만수의 세계 려행—서부 독일에서—……그림, 리 의명(44)
청년 오락실 ……………………………………………………………(48)

3
(114)
1959

편집 위원 리 홍종(주필)
전 성근 박 춘실 지 장린
김 상민 송 선경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1959년 3월 1일 인쇄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1959년 3월 10일 발행
(값 30 전, ㄱ—30143) 100,000부 발행

청년들은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우리 당 중앙 위원회 2월 전원 회의에서는 공업 생산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인민 대중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 당 활동의 최고 법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요구하는 절실한 문제이다.

의식주 문제의 성과적 해결에 따라 제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량적 수요는 기본적으로 충족되여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은 더 쓰기 좋고 훌륭하며 튼튼하고 아름다운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제품의 질 제고는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업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만약 우리가 같은 원가를 가지고도 10년 쓸 수 있는 제품 대신에 20년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낸다면 우리들 자신과 국가에 얼마나 큰 리익으로 되겠는가!

이와 같이 제품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현시기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제기되는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그러면 제품의 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 일성 동지는 생산품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 척도는 결국 그의 사회주의적 내용이라고 강조하시면서 그것은 《인민들에게 편리하고 아담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것》을 의미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우리 나라에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는 근로자들이 자기 자신과 전체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로동하며 우리에게는 또한 준비된 기술자, 전문가들의 대렬과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당의 현명한 령도로 구축된 강력한 공업 기지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 경제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을 어떻게 리용하는 가에 있다.

그러면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제품의 질 제고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자기 사업에 대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확립하는 문제이다.

우리 인민은 근 반 세기 동안이나 일제의 가혹한 채찍 밑에서 살아 나가기 위하여 할 수 없이 갖은 박해와 천대를 받아 가면서 일해 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자기가 만들어 내는 제품의 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없었으며 되는대로 일하고 되는대로 살았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자신이 만들고 있는 제품은 전체 인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생산하는 인민의 재산인 것이다. 때문에 수 많은 물자와 로력을 들여서 질이 낮은 제품이나 오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조국과 인민 앞에서의 엄중한 범죄적 행위인 것이다.

생산품의 질—이것은 결국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의 사상의 반영이다. 진정으로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주의적 로동 태도를 가진 일'군들이 만든 제품만이

그의 높은 질을 보장할 수 있다. 본호에 실린 바와 같이 남포 지방 산업 유리 필수품 공장 일부 청년들이 생산한 제품의 질이 낮은 원인은 곧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낡은 태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전체 청년들은 자기는 좋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좋은 것을 만들려 힘쓰지 않으며 되는대로 일하는 현상, 질이 낮은 줄 알면서도 계획의 량적 보장에만 정신이 팔려서 덮어 놓고 만드는 현상, 그리고 이러한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현상을 보고도 못본체 하는 고용살이적 태도와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새 기술을 도입하여 부단히 기술적 개조를 진행하지 않고서는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가? 우리의 현존 기술 력량은 인민 경제를 앞으로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며 제품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할 거대한 과업의 요구에 비한다면 아직도 미약하며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도 낮은 형편에 있다. 오직 새 기술을 습득하여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야만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기술 발전에서 선봉적 역할을 할 사람은 청년들이다. 김 일성 동지는 《새로운 기술의 습득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적어도 한가지씩의 기술을 소유하여야 하며 자기가 맡은 사업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에 정통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기술 전습, 기술 학습에 빠짐 없이 참가하여 한가지 이상의 기술 기능 소유를 위한 대중적 운동에서 모범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능공들은 반드시 기능이 부족한 3—4명의 무기능공들을 맡아 책임지고 양성하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함북도 길주군 종합 목공장과 경원 탄광을 비롯한 적지 않은 초급 민청 단체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처럼 청년들의 기술 기능 제고를 위한 사업에 무관심한 태도를 결정적으로 고쳐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규률과 제도를 확립하는 문제이다. 질서와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제품의 질은 높아지지 않는다.

청년들은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 준수에서 모범이 되며 누구나가 다 검사원이라는 립장에서 제품의 질이 낮아지고 오작품과 불합격품이 생산되는 원인을 집체적으로 검토하며 오작품 퇴치와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혁명적 경각성을 일층 높이여 우리의 성과를 해치려는 그 어떤 사소한 경향과도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투쟁은 비단 공업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의 호상 련쇄된 모든 부문, 모든 고리에서 전개되여야 한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새해 첫날부터 생산 계획을 매일, 매달, 매분기마다 지표별로 어김없이 완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라는 우리 당 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모든 부문에서 관철하자!

우리 나라 청년들은 지난 기간 당의 위임이라면 어떠한 간고한 임무라도 해내지 못한 일이 없었다. 전체 청년들은 우리 당 2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투쟁에서도 당의 충직한 방조자의 역할을 빛나게 수행할 것이다.

무엇이 제품의 질 제고를 방해했는가

편집부는 남포 지방 산업 유리 필수품 공장에서 만든 유리 제품들이 질이 낮다는 독자들의 신소를 접수하고 그를 동공장 민청 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민청원들이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다음에 토의에 참가한 몇 동무의 의견을 발표한다.



우선 공산주의적 로동 태도가 확립되여야 한다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의 질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들 속에 공산주의적 로동 태도가 확립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는 지난 날 수요자들의 립장에서 일하지 못한 데로부터 제품의 질을 높이라는 신소를 받고도 이를 해결할데 대한 노력이 없었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며 전면적인 설비의 기술적 개조가 있어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그릇된 것이라는 것이 들어 났다. 수요자의 립장에 서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얼마던지 현존 설비로써도 능히 질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한 가지 례를 들면 유리 그릇에 기포가 생기고 유리 색갈이 나빠지는 원인은 화실에서 재가 넘어 와서 유리물에 뒤섞이기 때문이 였다.

지난 기간 우리들은 설비의 개조 없이 이것은 방지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실은 간단히 방지될 수 있었다. 무연탄을 충분히 연소시킨다면 화실 안의 재가 유리물에 넘어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기술이 들어야 되오》, 《설비를 개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오》라고 조건에만 빙자하면서 질을 높일데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기술에도 문제가 있지만 중요하게는 우리가 만들어 내는 제품을 인민들이 쓰며 우리 공장의 상표가 달려나가는 제품의 질에 따라 우리 자신들이 인민들로부터 검열 받는다는 고상한 자각성과 책임감이 부족한 데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한 당 2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에서 우리 공장 민청 단체는 선차적으로 청년들이 공산주의적 로동 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브리가다장 김 원익



— 천 좀 보여주시요—

제품의 질—그것은 생산자의 사상의 거울이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결국 상품을 직접 만들어 내는 생산자들의 사상 관점에 달려 있다.



—아이구! 얼핏 보기와는 다르구나……—

우리 공장의 경험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진정으로 근로자들의 복리를 위하여 제품을 만들어 내자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하는 일엔 침체자 없으며 새로운 예비들이 탐구되면서 계속 질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작품과 불합격품이 근절되지 않는다.

제품의 질을 높이라는 수요자들의 신소를 받고 김 원익 동무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로를 뜯어 고치자고 제기했었다. 그런데 일부 동무들은 파유리만 사용하는 조건에서 로를 백 번 뜯어 고쳐도 소용 없다고 고집하였다. 이들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절로 떨어 지기를 기다리 듯이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초석, 형석, 붕사, 망강, 안찌몬 등 자재가 들어 가야 된다고만 우기고 실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데는 념도 내지 않으면서 결국은 《조건이 허락하지 않으니… 수요자들이여 참으라…》는 식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제품을 만든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제품을 인민들이 나쁘다고 하는데 어찌 이런 상태를 참고 있을 수 있는가!

그래 우리들은 계속 연구한 결과 로 개조에 성공하였다. 유리 색도 고와지고 유리 떼나 유리관을 만들 때의 부족점들이 극복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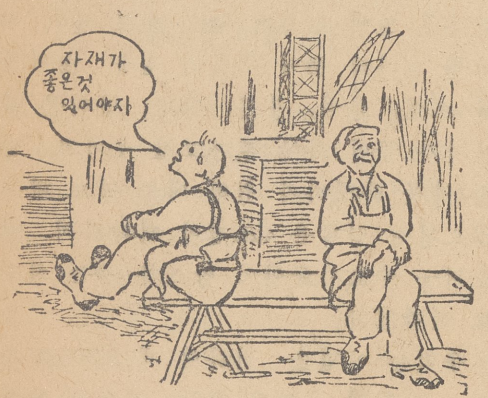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우리의 경험은 질 제고에서 결정적 요인은 일'군들의 사상 관점에 관한 문제이며 이 관점이 확고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 공장에서 질이 낮은 제품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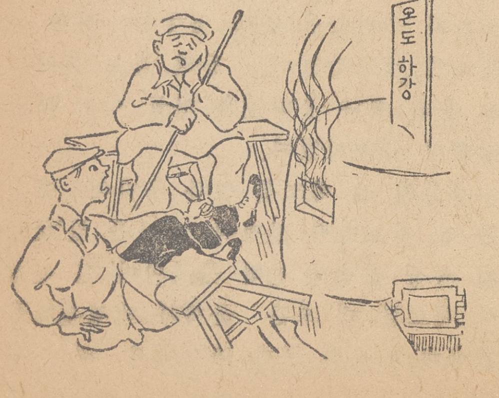
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다.

취조공 최 봉규

기술 기능이 높아야 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나는 우리 공장 제품의 질이 낮은 원인의 하나가 청년들의 기술 수준이 낮은데 있다고 생각한다. 제품의 질을 보장함에 있어서 무연탄 로의 온도를 보장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즉 무연탄 로의 열도를 1,400~1,500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 열도를 보장하자면 일정한 기술이 요구된다.





그런데 무연탄로에서 일하고 있는 일부 청년들은《석탄을 때는 일에 무슨 기술이 들겠는가?》고 생각하면서 기술을 배울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로의 온도를 점차 높이기는 고사하고 규정된 온도를 보장하지 못하여 유리가 제대로 용해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낮아지게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로의 온도를 보장하지 못하여 그나마의 제품도 하루 온 종일 만들어 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무연탄이 나쁘다고만 고집하고 자기들의 기능 수준을 높이려고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덜 녹은 유리물로 제품을 만들다 보니 오작이 아니면 질이 낮은 제품을 말들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였다.

청년들의 기능 수준이 어리고 기능공이 부족한 우리 공장 실정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기술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다.

용해공 류 영팔

표준 조작법이 준수되여야 한다

원래 유리 그릇이라면 견고하면서도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은 차라리 유리 그릇이라기 보다는 흙으로 비저서 만든 질그릇을 련상하리만큼 질이 낮다.

그래 우리가 만들어 낸 유리 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신소는 점점 높아 갔다.

그러나 우리는 수요자들의 이 정당한 신소를 접수할 대신에《…어떻게 첫술에 배 부를 수 있겠는가?》고 공장이 신설된 조건에 빙자해 왔다. 그러면 과연 이런 애로로 해서 제품의 질이 높아질 수 없었단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원래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자면 정해진 기술 규정이 지켜져야 되며 규률이 확립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공장 형편은 이러하지 못하였다.

원자재인 파유리를 선별하는 일을 두고 보자— 파유리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섞였을 뿐 아니라 무연탄 로에서는 잘 녹지 않는 파유리들이 섞여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내서 깨끗이 씻어 내는가 못내는가에 따라서 제품의 질에 영향이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선별공들은 대강대강 골라치우는가 하면 물에 씻는둥 마는둥 해서 슬쩍 건져내고 있다. 이러다 보니 흙, 잔돌 등 불순물들이 섞여 들어가 제품에 기포가 생기여 결국엔 오작품 아니면 질 낮은 유리 그릇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런 형편에서 제품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사실 빈 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째인 규률 밑에서 제정된 기술 규정이 자각적으로 준수될 때에라야만 질 좋은 제품이 생산된다.

취조공 리 정수

민청 단체에 책임이 있다

우리 공장 민청 단체는 지난 기간 제품의 질이 낮은 원인을 주로 생산 설비가 불충분하고 일'군들의 기능 수준이 낮은 데 있다고만 여겨왔지 일'군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에 기인된다는 것을 심각히 느끼지 못하였다. 우리 공장에서 제품의 질이 높지 못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취조공인 김 만협 동무는 다른 동무에 비하여 비교적 기능 수준이 높은데 그는 계속 오작품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가 만들어 내는 제품의 질도 그다지 높지 못하다. 김 만협 동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번 토론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이 바쁜 통에 어떻게 일일히 표준 조작법을 다 지킨단 말인가?》고 하면서 눈 짐작으로 일한데 기인된다.

김 만협 동무의 이런 로동 태도는 인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자각과 인민 앞에서 책임진다는 고상한 사상과는 인연이 없는 그날그날을 살아 나가기 위하여 되는대로 일하던 낡은 일제 사상 잔재의 표현인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 공장 민청 위원회는 청년들의 사상 관점을 바로 잡기 위한 교양 사업을 불원만하게 진행하였다.

우리는 당 중앙 위원회 2월 전원 회의 정신에 근거하여 지난 기간의 자체 사업을 심각히 검토하고 질 제고를 위한 당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 할 것이다.

민청 위원장 김 윤섭





혁명은 긴장, 경각성, 규률을 요구한다

조선 인민군 중장 서 철

혁명은 치렬하고도 간고한 계급 투쟁이다. 혁명은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니며 순풍에 돛을 단 배가 달리는 것 같이 쉬운 일도 아니다. 거기에는 험한 준령과 가시 덤불도 가끔 놓여 있으며 때로는 무서운 격랑과 풍파도 겪어야 한다. 우리 나라 민족 해방 투쟁사와 쏘련 및 중국의 혁명 력사가 이것을 증명하여 준다.

해방 후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이 완수되였으며 사회주의 혁명에서도 이미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이 혁명의 원쑤들과의 간고한 투쟁 속에서 쟁취한 고귀한 전취물이다.

오늘 우리 앞에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촉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여야 할 혁명 과업이 남아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혁명 과업을 세계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와 우리 조국 땅에서 직접 상치한 환경에서 수행하고 있다.

인류 력사는 계급적 원쑤들이 력사 무대에서 순순히 물러간 경우를 알지 못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사정은 동일하다. 특히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일대 고조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불안에 쌓인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은 우리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말살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를 파괴하기 위한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은 남조선에 원자 무기를 끌어 들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원자 무기에 의한 《군사 훈련》을 실시하면서 어리석게도 《북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파괴하려고 공화국 북반부에 잠입한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은 아직도 옛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청산된 자본가 지주와 악질 분자들과 야합하여 악랄한 반혁명 음모를 감행하려 책동하고 있다. 현실은 우리 나라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이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여 인민들의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 전취물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철석 같이 보위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되여 있을 것을 요구한다.

긴장, 경각성, 규률— 이것은 혁명 투사의 고상한 품성이다.

일제와의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에서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들은 언제나 긴장성과 경각성을 견지하고 강철 같은 규률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일제놈들은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대오를 와해시키려고 갖은 발악을 다 했다. 놈들은 간첩들을 파견하며 빨찌산들이 겪고 있는 혹심한 식량의 결핍을 비롯한 난관이 중첩되는 악조건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그들을 물질적으로 매수하려 하였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 굳은 신념과 혁명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항일 빨찌산은 원쑤들의 어떠한 음흉한 책동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생활은 언제나 높은 혁명적 경각성과 전투적 긴장성으로 일관되여 있었다. 그야말로 유격대의 대렬은 빈틈 없이 째워 있었기 때문에 원쑤들이 발붙일 곳이란 그 어디도 없었다.

항일 빨찌산들은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불굴의 투쟁 정신을 발휘하면서 수량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비할 바 없이 우세한 적들을 상대로 하여 15 여 성상의 긴 세월을 하루와 같이 투쟁하였으며 빛나게 승리하였다.

혁명적 긴장성은 항일 유격대원들의 확고한 생활 법칙이였다.

유격대원들은 단 한초 동안이라도 긴장성을 늦춘다는 것은 곧 전체 유격대원들의 생명에 관련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기의 임무 수행에서 일순도 해이해 본 일이 없었다. 유격대원들은 모든 것을 오직 혁명에 바쳤으며 그들에게 다른 잡념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심한 추위와 모진 굶주림을 참아가며 우세한 적들과 싸우면서 깊은 눈'길을 헤쳐 나아가는 간고한 투쟁 행정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옮겨 놓는 데 있어서도 해이함이 없이 긴장하였다.

항일 유격대 내에 확립된 혁명적 규률은 의식적으로 준수하는 자각적 규률이였다.

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상부의 명령은 곧 혁명의 요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행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그들은 자기 희생을 두려워 하지 않았으며 그를 정확히 수행함으로써 혁명 위업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 없이 보이였다.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싸워 온 항일 빨찌산에 있어서 규률 위반은 혁명에 대한, 조국에 대한, 동지에 대한 배반으로 간주하였다.

당시 항일 빨찌산의 군중 규률 조례에는 인민들을 자기 육친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인민들의 한 알의 식량, 한 오리의 실이라도 귀중히 보호하고 인민의 리익을 털끝 만치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밝혀져 있었다. 유격대원들은 어떠한 고난과 난관에 부닥쳐도 이 혁명적 규률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였다. 유격대원들은 혁명 위업을 위하여 제정된 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항상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여 유격 대오의 사상 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눈 동자와 같이 귀중히 여기고 그를 강화 함에 전력을 다하였다.

일제는 항일 투쟁을 진압하려고 대병력을 동원하여 군사적 공격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단》, 《협화회》, 《선무반》 및 기타 각종 반동 단체들을 조직하고 유격대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교활한 책동을 끊임 없이 감행하였다.

그러나 유격대원들은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일제의 온갖 흉악한 모략과 책동을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면서 항상 김 일성 동지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여 원쑤들과 싸워 이겼다. 유격 근거지에서는 아동단의 어린 소년들까지도 적들의 발악적인 파괴, 암해 행위를 제때에 적발하고 타격을 줌으로써 혁명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시기에 유격대원들을 비롯하여 유격 근거지 내 인민들은 늙은이, 젊은이,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긴장하여 살았다. 유격 근거지에서 인민들은 생산에 종사할 때는 반드시 청년들로 조직된 적위대, 자위대로 하여금 경각성 있게 보초 근무를 수행케 하고 적들의 불의의 습격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 태세를 늘상 갖추고 있었다.

우리 청년들은 혁명적 규률과 질서가 확립되고 높은 혁명적 경각성과 전투적 긴장성으로 일관된 항일 유격대원들의 이러한 고귀한 모범을 본받으며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은 치렬한 계급 투쟁이다. 오늘의 정세는 우리에게 사소한 안일성과 해이성도 허

용하지 않는다. 우리의 승리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앞으로의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닦아 놓은 데 불과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승리에 도취하거나 자만 자족할 권리가 없다.

교활하고 음흉한 계급적 원쑤들은 항상 우리의 빈틈을 엿 보고 있다. 청년들은 우리에게 표현되는 사소한 해이성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며 조국 보위를 위하여 언제 어데서나 원쑤들의 책동을 분쇄할 수 있게 사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항상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청년들은 우선 공산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의지 대로 살며 모든 것을 당에 바치는 열렬한 혁명 전사로 되여야 한다. 또한 체력을 단련하며 군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체육 스포츠 사업과 군사 훈련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우리의 혁명적 전취물을 파괴하려고 날뛰는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사소한 불순한 현상에 대해서도 그것을 우연하게 보지 말며 예리한 계급적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들은 자기 향토와 직장 보위를 위한 자위대 사업에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적극 참가하여 보이지 않는 원쑤들을 모조리 잡아 내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기률 질서가 정연하고 사상 체계가 확고히 서면 모든 부정적 요소들을 제때에 폭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교시 하시였다.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명심하고 규률과 질서를 강화하여 원쑤들에게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민청원들은 민청 조직 생활을 강화하며 민청 조직을 규률 있고 공고한 전투적 집단으로 꾸리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태평가를 부르지 말고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전체 청년들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단결하며 김 일성 동지의 충직한 전사로서 당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근 간 소 개◇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1)

4×6판 예정 페지 200페지
발행 부수 300,000부 발행 예정월 4월

이 책에는 1930—1940년대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전개된 항일 빨찌산 투쟁에 참가한 투사들의 회상기가 수록되여 있다.

제1집에는 최 현 동지의 《김 일성 원수와의 첫 상봉》을 비롯하여 김 철호 동지의 《고난의 40일》, 박 영순 동지의 《연길 폭탄》 등 30편의 자료들이 수록된다.

이 책은 1930—1940년대 항일 투쟁사를 연구하며 조선 로동당의 혁명 전통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참고 자료이다.

조선 로동당 출판사 발행



위 기 일 발

오 준 옥

우리 항일 빨찌산은 1941년 경부터 소부대 활동으로 이행하였다. 이때부터 내가 속한 소부대는 훈춘, 왕청, 동녕현 일대에서 인민들과의 련계하에 당 단체와 대중 단체들을 복구 확대하는 지하 정치 사업을 하는 한편 적정 조사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다.

1945년 음력 설이 지난지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때에 소부대와 공작을 하던 나는 현철 동무와 밀영을 나섰다. 동지들은 적정 조사 임무를 맡고 밀영을 나서는 우리에게 경각성을 높이라고 하면서 임무 수행에서의 성공을 축원하는 뜨거운 악수를 보내 주었다.

우리 두 사람은 싸창과 38식 보총을 휴대하였고 배낭에는 십 여 일 분의 강냉이'가루와 강냉이떡이 들어 있었다.

우리들은 밤이면 걷고 낮에는 쉬면서 사흘째 되는 날 밤 8시 경에는 훈춘현 이도구 골짜기에 있는 숯막집 뒤'산에 이르렀다.

한달 전에 우리들은 이곳 숯막집에서 숯굽는 사람들과 련계를 맺은바 있었다. 그때 우리들은 그들과 음력 설날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었다.

우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들은 장구한 기간 인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 속에서 원쑤들을 섬멸하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이것을 안 흉악한 일본 략탈자들은 자기들의 주구들을 농민으로, 포수로, 숯쟁이 등으로 가장시켜 산중에 침입시킴으로써 아군 부대의 활동을 정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인민들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사업하는 동시에 그들 가운데 끼여 든 인민의 탈을 쓴 원쑤의 앞잡이를 적발하는 데도 항상 고도의 경각성을 높이고 있었다.

우리 빨찌산들은 련계를 맺은 사람의 처지를 완전히 료해하기 전까지는 많은 경우에 약속한 날자에 만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도 약속한 날자보다 일주일 늦어서 이 숯막집을 찾아 왔다.

숯막집은 골짜기 북쪽켠 산 밑에 위치하고 있었다. 외간 집으로 된 이 숯막집은 나지막한 데다가 지붕에는 눈이 폭 쌓여 있었다. 집 정면에 출입문이 있으며 그 옆에 자그마한 퇴창문이 달려 있었다. 퇴창문으로는 희미한 불'빛이 흘러 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목적한 장소에 도착하였다는 안도감과 우리를 도와 주는 인민들과 만나게 될 반가움이 앞을 서서 약간 흥분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도착하였다는 신호를 하려고 했다.

나는 현철 동무에게 낮은 소리로 《어떻게 할가?》 하고 말했다. 우리는 잠

시 침묵을 지키며 생각했다.

이때 나의 머리에는 2년 전에 있은 일이 회오리바람처럼 떠올랐다.

… 2년 전 여름이였다. 나는 유격대원 2명과 함께 왕청현 진창에 사는 사람과 련계를 맺고 얼마간 사업하였다.

하루는 우리들 세 명이 밤 2시경에 그 사람네 집에 찾아 들어 갔다.

우리는 미리 중국 동지 1명을 그 집 밖에 매복시켰었다. 그런데 그전 같으면 문어구에서 잠간씩 이야기하군 하던 그 사람이 이날 따라 류다른 친절성을 표하면서 안'방 쪽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 가는 것이였다. 그때 나에게는 불길한 예감이 떠 올랐다. 그래 《어쩔가!》하고 선자리에서 망서리는 중인데 아니나 다를가 귀청을 찢는 듯한 총소리가 일어 났다.

우리는 맞총질을 하면서 밖으로 뛰여나와 어둠을 타고 몸을 피했었다. 그때 위급했던 일을 생각한 나의 가슴은 몹시 긴장했다.

—아니다, 우리가 목적한 장소에 도착하였다가 인민들을 만나지도 않고 돌아설 수는 없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인민을 의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나는 결연히 나무 가리 뒤에 숨어 있는 현철 동무에게 속삭였다. 《현철 동무는 그냥 여기에 숨어 있소, 내가 그 사람을 불러 낼테니 동무는 형편을 보아 날쌔게 행동해 줘야겠소.》

나는 《그럽세다》하는 은근한 소리를 등뒤에 들으며 마당 앞으로 다가갔다. 나는 기침 소리를 둬번 내고 그 사람을 불렀다.

그러자 방 안에서 중얼중얼 흘러 나오던 말소리가 죽은 듯 조용해 졌다. 뒤이어 문 여는 《삐그덕》 소리가 나더니 거무스레한 옷을 입은 사람이 마당에 나왔다.

그 사람은 나를 인차 알아 보며 날씨가 추운데 어서 방 안에 들어 가자고 말했다. 나는 밤이 좋으니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그의 《후대》를 거절하려 했으나 그 사람은 나의 손목을 끌며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였다.

나는 그에게 들어 가긴 하겠는데 우선 물을 말이 있으니 잠간이라도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집 안에 어떤 사람들이 와 있소?》

나는 그에게 따져 물었다. 그 사람은 그전에 다 만났던 사람들이니 념려할게 없다고 하면서 태연히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만일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나무 가리 뒤를 보면서 현철 동무를 불렀다. 현철 동무는 나 있는 데로 걸어 왔다. 그는 한 손을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있었다.

그 사람은 현철 동무에게 굽벅 인사하면서 《자 이렇게 서고만 있지를 말고 어서 방에 들어 갑시다》하고 거듭 재촉한다.

《그럼 들어 갑시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앞세우고 집 있는 쪽으로 걸어 갔다.

그 사람의 바로 뒤에는 현철 동무가 따랐고 나는 맨 뒤에서 걸었다. 나는 걸으면서 경각성을 높이라고 일러 주던 동지들의 말을 명심하였다.

그 사람이 방문을 열려고 할 때에 나는 현철 동무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짓으로 퇴창문 쪽을 가리켰다. 현철 동무는 나의 눈'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차 알아 차리면서 고개를 약간 끄덕거렸다.

그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 갔다. 현철 동무는 문'가에 서서 서성거렸다. 나는 이때 퇴창문이 난 벽체에 바싹 붙어 서서 창'구멍으로 방안의 동정을 살피기 시작했다.

방에는 5~6명의 사나이들이 앉아 있었다. 창'구멍을 통하여 그 사나이들을 보게 된 나는 방 안에 있는 사나이들이 이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어째서 아까 그 사람은 그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가?!… 여기에는 필경 무슨 흉계가 있음이 틀림 없었다.

나는 더 생각할 사이 없이 허리춤에서 싸창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전투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어서 들어 오십시오》 그 사람은 우리를 불렀다. 현철 동무는 태연한 어조로 《들어 가지요》 하면서 우물거리는 모양이였다.

현철 동무가 문안에 들어 선 듯하였다. 그 순간 방 안에 앉아 있던 사나이가 옆 사람을 보고 《총을 쥈구나》 하고 수군거리면서 펴 놓은 이불 밑에서 총을 꺼내여 문쪽을 겨누었다. 그 찰나에 한 방의 총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그러자 총을 꺼내 들었던 놈이 쓰러졌다.

그 총소리는 현철 동무의 싸창 소리였던 것이다. 그러자 방 안은 삽시에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현철 동무는 문'간에서 쏘고 나는 퇴창문을 뚫고 계속 사격하였다.

그놈들은 우리의 맹사격에 눈이 뒤집히면서도 발악적으로 대항하였다. 놈들은 권총, 장총 등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싸움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소란하던 총소리는 멎고 놈들의 죽어가는 신음 소리만이 가늘게 들렸다. 방 안의 동정을 살피면서 외부로부터 있을수 있는 기습을 예견하여 집 주변에 각성을 높였다.



그런데 현철 동무가 어떻게 되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어둠 속을 뚫고 집 문밖 쪽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때 검은 것이 눈앞에 보였다. 현철 동무였다. 《아! 살았구나》 나는 기뻐서 이렇게 속삭이듯 되뇌이며 그에게 다가가서 《상하지 않았소?》 하고 물었다.

그는 《나는 괜찮으니 어서 몸을 피하자》고 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어둠을 뚫고 산'골짜기를 빠졌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날 밤 방 안에 앉아 있던 놈들 중 5명은 그 자리에서 죽고 한 놈만이 중상을 당한 채 겨우 목숨을 부지해 가지고 도망쳤었다.

이놈들은 모두 흉칙한 일본 침략자들이 파견한 숯쟁이로 가장한 간첩들이였다. 왜놈들이 제 아무리 간교한 계책을 꾸민다 해도 우리 유격대의 높은 경각성 앞에는 언제나 녹아 나고야 말았던 것이다.



항일 빨찌산의 고상한 품성

김 룡 연

자각적 규률

김 일성 원수의 지도 아래 15개 성상을 하루 같이 싸워 온 항일 빨찌산들의 이야기는 수천 권의 책을 매도 다 못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해 온 일이란 너무도 작고 평범한 것이여서 이야기할 용기 조차 나지 않는다.

그러나 김 일성 원수처럼 조국을 위하고 인민을 위하여 생각하며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려는 동무들의 소박한 심정과 부탁 앞에 내가 무엇을 서슴으랴! 오히려 나는 기쁘고 친근한 마음으로 우선 몇 가지 만이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20 여년 전이지만 그때의 일들은 지금도 눈 앞에 석연하다…

빨찌산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품성의 하나는 자각적 규률이다. 또한 이 자각적 규률에서 우러나오는 훌륭한 이야기는 많고도 많다. 그 가운데서 지금 얼른 생각 나는 것은 동녕현 전투 뒤의 일이다. 왜놈들의 새로운 집결처를 들부시고 다시 김 일성 원수를 따라 강행군을 하고 있던 우리들은 동녕현성 경복호라는 곳에서 잠시 휴식을 하게 되였다.

때는 2월 초순 동북 산야를 휩쓰는 눈보라가 사납게 울부짖는 밤이였다. 온몸에 땀을 푹 흘린 우리들이 휴식 장소를 마련하고 난 것은 새벽이 거의 가까왔을 때여서 추위는 더욱 뼈짬과 살 속으로 파고 드는 듯했다.

가는 곳마다 적이요, 자나 깨나 싸움을 해야 하는 형편에서 우리들은 또한 밤이고 낮이고 산에나 들에서 지내야 했다. 눈 속에 앉아서 무기 소제를 하고난 나는 그 당시 분대장이였던 장 복동무의 지시를 받고 이미 나가 있는 영찬 동무와 보초를 교대하게 되였다. 사실 이러한 때에 제일 그리운 것은 잠이였고 또한 무정한 것도 잠이였다.

바람이 몰아치는 눈무지 속에라도 총을 안고 눕기만 하면 당장에 코를 골 것 같았다. 그러나 보초 임무를 받게되니 골 속에 파고 들던 잠도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다. 다만 귀중한 동지들의 생명과 대오의 운명이 오직 내 한 몸에 맡겨졌다는 생각으로 나는 한결 정신이 나서 영찬 동무에게로 갔다.

바위라도 밀어 갈 듯한 설한풍이 후려치는 철길 옆에는 그 사나운 바람과 혼자서 싸우는 듯한 영찬 동무가 노한 사자처럼 털외투 깃을 펄럭이며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없었소! 영찬 동무!》 하고 나는 그와 자리를 바꿔 섰다. 그러자 이때 영찬 동무는 내 손을 꽉 잡은 채 《동무! 명심해 주오! 특히 졸지 않도록…》하고 새삼스러운 부탁을 하는 것이 였다.

《졸다니!?… 보초가… 항차 이런 곳에서 잠이 올리 있나!…》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그러자 영찬 동무는 그 커다란 눈을 슴벅하더니 《동무!… 고맙소! 나는 하마트면 졸번 했소! 마침 동무가 와 줬기에 망정이지…》하고는 얼굴을 후려치는 모진 바람을 피하듯 얼른 돌아 서서 캄캄한 눈보라 속에 감춰져 버리는 것이 였다.

《버쩍 정신을 차리자…》나는 내 자신에게 타이르는 것인지, 또는 영찬 동무를 충고하는 것인지도 모를 이런 소리를 하면서 총을 단단히 잡고 눈보라 속을 살폈다.

얼굴을 후려치는 눈보라는 칼 부림 소리를 치면서 연신 감아 들고, 오금과 허리를 꽁꽁 얼구었다. 마침내는 빰과 눈 신경을 빼앗아 가는듯 하였다.

《버쩍 정신을 차리자!…》 나는 또 이런 생각을 불러 일으키며 얼굴을 문대고 앞을 쏘아 보았다.

겨우 내다 보이는 지점에는 참나무 한대가 금시 넘어질 듯이 바람 속에 모제비로 휘여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 보다도 더 단단한 뿌리를 땅 속에 박은 것처럼 굳센 의지로 허리를 펴고 서 있었다. 이때 특히 나를 고무해 주었고 기쁘게 해준 것은 방금 전에 영찬 동무가 솔직히 자기 잘못을 털어 놔 준 것이며 나를 그렇게 되지 말도록 념려해 준 것이였다. 보초를 교대하고 나면 나는 그를 힘껏 그러안아 주고 싶었다.

내가 보초 근무를 교대한 것은 얼마 후였다. 내가 휴식장 가까이 왔을 때 누구인가 사납게 몰아치는 바람 마치에 우뚝 서서 두 팔을 추켜 들고 있었다. 그것은 방금 전에 내가 본 참나무 같이 느껴졌다.

《누가 처벌을 받는군…》 내심 이렇게 생각되나 또한 무심히 지나칠 수 없어 그 앞으로 지나던 나는 흠칫 놀라서 기둥처럼 우뚝 서 버렸다.

《아!… 동무가!?》 나는 이렇게 당황한 소리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바로 방금 전에 나를 고무해 주기까지 한 영찬 동무가 아닌가!… 그리고 자기 잘못을 솔직히 뉘우친 동무가 아닌가!… 누가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말해 가면서…

《그런데… 영찬 동무! 무슨 일로 처벌을 받았소!》하고 나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이런 말을 불쑥 입 밖에 냈다. 그러자 그는 결이 난 사람처럼 못마땅한 시선으로 나를 흘끔 보며 바람 마지 속에서 마주 소리를 치는 것이였다.

《무슨 일로라니?!… 방금 전에 내가 말하지 않았소! 어느 때라고 내가 졸번 했는지…참! 분… 분해서 못견디겠어…》 이때 그의 두 팔이 더 높이 추켜지는것 같았다.

《…정신을 버쩍 차려야지… 동무는 졸지 않았겠지… 그럼 어서 들어 가서 분대장 동무에게 보고를 하고 쉬오!》 이 말에 나는 아무런 대'구도 못하고 그 곁을 물러 났다.

눈보라 속에서 불이 이는 듯한 그의 눈망울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날 영찬 동무는 자기 잘못을 분대장에게 보고했고, 남모르게 스스로 밖에 달려 나가서 자기 결심대로 처벌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지금 동무들에게 밝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 죄과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증오하면서 깨끗이 씻고 불요불굴의 투사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침범 못 한다. 빨찌산들은 이렇게 자기 결함을 발견하고는 스스로 고치기에 용감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각적 규률이며 이런 정신이 그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중에서

대로 오늘 우리 조선 인민 군대의 고상한 품성으로 계승되였다.

그 어떠한 적들인들 이런한 우리의 자각적인 강철의 규률을 깨뜨릴 수 있으랴!…

내 몸과 같이

비록 악을 쓰고 달려 드는 적들이 얼마만한 수'자이고 또 어떠한 무기로 대항을 하건 우리들에게는 항상 김 일성 원수의 현명하신 령도가 있었고 승리의 신심이 들끓었다.

그 한가지 실례를 몽강 지구 전투에서도 들 수 있다. 당시 그곳에 있던 적들은 높고 두꺼운 토성을 둘러 쌓고는 요소 마다 중기 경기를 빈틈 없이 걸어 놓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토벌》하려고 대기중에 있는 놈들은 정규군만 하여도 근 2백명이나 되였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10 여명이서 항차 날이 밝은 때에 당당히 습격하였던 것이다.

어떻게 이렇듯 대담한 전투를 할 수 있었던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꾸준하고 성실한 군중 공작을 통하여서와 실지 행동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된 때 였다.

이보다 더 믿음직한 조건이 무엇이겠는가 굳게 닫혀졌던 성문은 우리 앞에 쉽사리 열려졌고 우리들은 불과 몇 개의 수류탄으로 능히 적들을 처단할 수 있었다.

《요창 부요밍! (총을 내놓으면 생명을 살군다)》《총은 일본놈의 것이다. 어서 내던지고 너의 생명을 구해라!》

이러한 구호를 웨치는 우리 앞에서 강제로 끌려 나온 위만군들은 여기 저기서 손을 들고 나섰다. 전투가 끝난 뒤에 빨찌산들은 무기 창고며 식량 창고를 터쳐 놓고 인민들에게 식량을 분배하여 주었으며 그외에도 적들에게서 도로 찾아낸 인민들의 물품은 무엇이나 전부 주인을 찾아 주었다. 이에 더욱 감격한 인민들은 저마다 자진하여 빨찌산의 짐을 지고 나섰다. 그러나 빨찌산들은 인차 그들을 집에 돌려 보냈다. 인민들의 뜨거운 성의와 사랑은 고마우나 만일에 적들이 추격해 오면 인민들에게 위험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였다.

이러한 빨찌산들의 생각은 옳았다. 잠시 후에 적의 응원 부대가 앞 뒤로 협격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빨찌산들은 예견하였고 그에 대한 대책이 서 있었다. 기본 력량은 이미 제 2 방향으로 이동한 뒤였고 매복했던 척후 대원들은 마음껏 적들을 쓸어 눕힐 수 있었다. 그러나 적들은 무리로 쓸어지면서도 계속 증원해 왔고 전투는 가렬해 갔다.

이런 때에 내 옆에서 한 동무가 부상을 당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부상을 다른 동무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동무들이 알면 그만큼 전투에 지장이 될 것을 념려했기 때문이다.

《동무는 어째 총을 쏘지 않소?!》 하고 물어보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아니요, 나는 저놈들 속으로 뛰여 들어 가겠소!》하고는 폭약 묶음을 안고 적들 속으로 굳듯이 뛰여 들어 갔다. 이것을 미처 말릴 사이도 없는 나는 《이놈들아! 폭발탄이 터진다!》 하고 소리를 치면서 그의 앞을 지르듯 뛰여 들었다. 그리고 그 동무에게서 빼앗은 폭약 묶음을 당황하는 놈들의 복판에 처박았다.

《파르릉!…》하는 소리와 함께 놈들은 수 없이 쓰러 졌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나는 뛰는 놈들과 발악하는 놈들을 총탁으로 후리고 찔렀다.

《어째 동무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하오?!》 하고 나는 붕대를 감아 주며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나를 나무라듯 《어째 동무는 그런데

따라드오… 동무까지 부상당하면 어찔려구…》 그말에 나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 동무를 업었다. 그리고 기본 대오가 걸어간 방향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내가 더 놀란 것은 바로 그 산 모퉁이에서 인민들이 달려 나왔던 것이다. 그들은 먼 길을 달려 왔는지 온 몸에서 땀이 비오듯 했다.

《아 웬 일들이시오?》《총소리가 나기에 되돌아 왔수다. 당신들과 함께라면 맨 주먹으로라도 왜놈 몇쯤은 넉넉히 잡을 것 같이 생각되오다…》 하고 말하면서 그중 한 사람이 내가 업고 있는 최 동무를 빼앗듯이 자기 등에 옮겨 업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두 사람의 앞 뒤를 옹위하듯 산속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이 역시 우리들이 김 일성 원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싸운데 있는 것이다.

《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으며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 살 수 없다.》

내가 처음으로 빨찌산에 입대한 첫날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김 일성 원수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이 정신으로 교양하셨으며 몸소 그 선두에서 실천하셨다. 바로 그 모범을 우리는 자기의 사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혁명의 꽃봉오리

1934년에 여덟살 난 소녀(그는 유격 전사 김 택규라는 사람의 딸)가 왜놈에게 잡혀 갔다. 왜놈 경찰은 그 소녀를 잡아다가 때리고 위협도 하고 얼리기도 하면서 취조를 하였다.

그러나 그 소녀는 《너 같은 놈들과는 말도 하기 싫다》할 뿐이였다. 취조하던 경부놈이 왜 무슨 까닭으로 말하기 싫으냐고 물었더니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같이 말을 한단 말인가》 하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을 들은 경관들은 악이 올라 더욱 매질을 하였다. 그러나 그 소녀는 울지도 않고 오히려 매서운 눈초리로 그놈들을 흘겨 볼 뿐이였다. 아무리 때리며 물어도 별수 없는 것을 안 그놈들은 또다시 얼리기 시작하였다.

《애. 너희들은 노래를 잘 한다는데 어디 여기서 창가를 한번 해봐 응》 아무리 매질을 하며 문초를 해도 영 대답조차 안하므로 창가를 시키면 혹시 그 노래 속에서 무엇을 알아낼까 했던 것이다. 그랬더니 소녀는 《창가를 할테다》 하고 대답한 후 서슴치 않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노래의 뜻은 이러했다.

곳곳에 쓰러지는 개같은 일본놈

그대신 나날이 높아가는 혁명의 기세

우리의 혁명 기세를 제국주의 개들은 어찌 못한다.

이러한 노래였다. 막 일본놈들의 속을 쑤시는 듯한 노래였다. 경부는 노래를 그만 두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소녀는 그만두지 않고 더욱 소리를 높이여 불렀다. 경부는 칼을 뽑아 그 소녀의 목을 겨누며 창가를 끊지 않으면 당장 죽인다고 울러 대였다. 소녀는 죽일테면 죽여라 하고 그냥 노래를 계속하였다.

소녀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싸우다가 희생되였다.

《빨찌산의 딸》 중에서

정치 강좌

조선 로동당 (3)

당 중앙 위원회는 우리 혁명의 심장이며 뇌수이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는 우리 혁명의 총참모부이다

당 중앙 위원회는 우리 당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써 당 대회와 대회 사이에 전체 당 사업의 지도를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있으며 전 당을 한 몸과 같이 결속시키고 있는 당의 심장이며 뇌수이다.

당 중앙 위원회는 우리 혁명의 각 계단에 있어서 정확한 로선과 정책들을 작성 제시한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에 의하여 제시되는 로선과 모든 정책들은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인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되며 그것은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 향상을 자기의 최고 목적으로 삼는다.

때문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로선과 정책은 항상 정확하며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 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이 있다.

또한 당 중앙 위원회는 현명한 동찰력과 강한 의지로써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국가 기관과 사회 단체,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을 조직 동원한다.

당 중앙 위원회의 옳바른 지도와 그의 거대한 조직 동원적 활동은 우리 혁명 발전의 매 시기에 달성한 모든 승리의 기본 요인으로 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는 당 내 원쑤들의 온갖 반당적 진출을 철저히 분쇄하고 맑스—레닌주의 순결성과 당 대렬의 통일을 고수하여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보장한다.

이와 같이 당 중앙 위원회는 우리 혁명의 전체 운명을 자기의 량 어깨에 걸머지고 인민들을 승리에로 령도하는 우리 혁명의 총참모부이다.

우리 당 창건의 력사는 비록 짧으나 우리 당의 골간과 그의 지도적 핵심은 오랜 혁명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파쑈적 폭압이 극도에 달한 1930년 대에 조선의 민족적 독립과 근로 인민의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항일 무장 투쟁의 기'발을 높이 들었다. 이 투쟁 행정에서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적 핵심이 형성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적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기초가 확고히 닦아졌다.

이들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가장 열렬한 애국자들이며 정치 군사 공작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혁명가들이다. 우리 당은 바로 이 간고한 투쟁 속에서 육성되고 세련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지도적 핵심으로하여 창건되였으며 그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다.

오늘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장구하고 간고한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세련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과 해방후 당 및 국가 건설에 헌신적으로 참가한 검열된 투사들로 구성되여 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수위에는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가 서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유격대의 조직 지도자이며 우리 당의 창건자이며 그의 지도자이다.

김 일성 동지는 그의 전우들과 함께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우리 당 창건의 기초를 닦아 놓았으며 8.15 해방 후에는 복잡한 국제 국내 환경하에서 온갖 원쑤들의 책동과 난관을 극복 타개하면서 우리 당을 창건 공고히 하였다.

우리 혁명의 매시기에 당 중앙 위원회가 취한 정확한 로선과 정책들은 모두 김 일성 동지의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과 그의 공고성은 이와 같이 간고한 혁명 투쟁에서 세련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지도적 핵심으로 한 중앙 위원회가 령도하고 있으며 그 주위에 전 당과 전체 인민들이 철석 같이 단결되여 있는데 있다.

당 중앙 위원회는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확고하게 령도하고 있다

8.15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명의 매 계단에 있어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력사적 승리는 례외 없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당 중앙 위원회는 8.15 해방 직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치 정세를 과학적으로 판단한 기초 우에서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하여 우선 공화국 북반부에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 공고히 할 로선을 제시하였으며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의 철저한 수행에로 전 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 동원 하였다. 그리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였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16개 제국주의 무력 침공자를 반대하는 3년 여의 조국 해방 전쟁은 조국 력사상 우리 인민이 체험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정책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우리 인민은 전후에 미제 야수들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페허 우에서 빈주먹을 가지고 복구 건설의 첫 삽을 들었다. 정전 직후에 소집된 당 중앙 위원회 제 6차 전원 회의는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전후 경제

건설의 총로선을 제시하였다. 당의 이 정책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가장 현명한 조치였다. 그러나 최 창익을 두목으로 하는 반당 종파 분자들은 이것은 《아무도 해 보지 못한 일이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느니 《우선 먹고 보자.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하면서 당의 옳은 정책을 반대하여 나섰다. 그러나 당 중앙 위원회는 반당 종파 분자들의 비방과 반대를 단호히 물리치고 이 정책을 견지하였으며 그 실현에로 대중을 불러 일으켰다.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승리적 완수와 5개년 계획 실행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기적적 성과는 당 정책의 정당성을 명백히 실증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농업 협동화 운동과 개인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가 우리 나라에서 그처럼 단시일 내에 성과적으로 완수된 것도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협동화 정책과 그 령도가 가장 정확하고 현명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전진에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3개년 계획을 완수하고 1차 5개년 계획을 착수함에 있어서 우리 인민은 강재, 석탄, 전력 및 기타 자재의 심한 부족과 재정적 난관에 부닥쳤다.

이 난관의 시기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당시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정확히 타산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 앞에 거대한 동원적 목표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에로 전 당과 인민을 불러 일으켰다.

12월 전원 회의가 있은 후 당 중앙 위원회는 인민 경제의 중요하고 당면한 고리를 하나씩 포착하여 거대한 개변을 일으켰다. 1957년 10월 전원 회의는 건설 부문에서 종파 분자들의 여독을 청산하고 일대 혁신을 가져 오게 하였으며 1958년 6월 전원 회의는 식료 가공 공업 및 일용품 생산과 상품 류통 사업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이 결정 실행 과정에서 전국에 1천 여 개의 지방 공장들이 건설되였고 금년에는 지방 산업 공장에서만 10억원 이상의 식료품과 일용품 및 건재들이 생산되게 된다.

이와 같이 12월 전원 회의가 있은 후 우리 나라의 경제는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즉 사회주의 혁명에서 일대 앙양의 시기 《천리마》의 행군이 시작되였다.

우리 당은 금후 6~7년 내에 주요 공업 제품의 생산량을 1958년에 비하여 전력은 2.6배, 석탄은 3.6배, 선철과 립철은 9배, 강철은 8—9배, 쎄멘트는 4배, 화학 비료는 3.3~3.4배, 직물은 4.6배로 각각 장성시킬 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에 고무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5개년 계획을 2년 앞당겨 완수하며 전망 계획 과제는 6~7년이 아니라 4~5년 내에 완수할 것을 결의하여 나섰다.

우리 인민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혁명 수행 과정에서 국제 국내적으로 여러번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당 중앙 위원회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어려운 시련을 훌륭히 이겨내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였

다. 그리하여 락후한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던 우리 나라는 짧은 기간에 오늘과 같은 강력한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 되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확고하게 령도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를 정치 사상적으로 보위하는 것은 청년들의 고상한 의무이다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전체 인민들이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튼튼히 단결하며 그를 정치 사상적으로 철저히 옹호하며 보위하여야 한다.

당 중앙 위원회를 정치 사상적으로 보위하는 것은 당의 후비대이며 방조자인 민청 단체들과 민청원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전체 청년들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모든 힘을 다하여 철저히 보위하며 고도의 혁명적 경각성으로 당 중앙 위원회를 해치려는 적대 분자, 반당 종파 분자들의 책동을 폭로 분쇄하며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에 대하여 불성실한 일체 현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당 대렬의 확고한 통일과 단결—이는 당의 생명이며 그의 위력한 힘의 원천이다. 청년들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며 온갖 반당 종파 분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동시에 종파의 온상으로 되는 지방주의, 가족주의 및 기타 일체 비 조직적, 비규률적 경향과의 투쟁을 강화하며 당적 원칙과 계급적 립장에 확고히 서서 혁명적인 동지적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또한 우리 당의 정책을 무조건 지지 옹호하며 그의 관철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당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 정책을 심오하게 연구하여 그의 계급적 원칙, 과학적 기초, 또한 그가 추구하는 목적과 실행 방도, 그의 정당성을 똑똑히 인식하여야 한다.

전체 청년들은 당 정책을 비방 외곡하는 사소한 경향과도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당의 사상, 김 일성 동지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의 의지대로 살고 행동하며 모든 것을 당에 바치는 당의 충직한 전사로 되여야 한다.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성실히 학습하며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과 우리 당의 투쟁 력사를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조선 로동당이 가리키는 곳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고 행복이 약속되여 있다.

전체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되여 그가 인도하는 길로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향하여 확신성 있게 전진할 것이다.

조국의 자연 부원을 보호 증식시키는 것은 청년들의 애국적 임무이다

조국의 자연을 애호하며 자연 부원을 증식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구체적 표현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는 유용한 동식물의 종수가 매우 풍부하다.

이 유용한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며 증식시키는 전 인민적 운동에 우리 청년들이 적극 나선다면 우리 조국은 더욱 백화 만발하고 록음과 과실이 무르익으며 산과 들에 새들이 지저귀고 짐승들이 홍성거릴 것이다. 또한 강물과 호수에는 물'고기가 떼를 지어 뛰놀게 되며 따라서 우리의 인민 경제는 더욱 앙양될 것이며 인민의 생활은 더욱 윤택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2월 16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정령 《유용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며 증식시킬 데 관하여》를 채택하였다.

그러면 우리 나라 강산에는 어떤 유용 동식물들이 있는가를 살펴 보자!

유용한 짐승들과 새들

1. 포유류(짐승들)

수달, 산달, 오소리, 검은돈, 누른돈, 너구리, 족제비, 여우, 청서, 다람쥐 등은 귀중한 모피 수류이며 외화 획득에서 중요한 원천으로 되고 있다.

이외에 노루, 복장 노루, 메돼지 등은 우리에게 육류를 공급해 주며 곰, 사슴, 사향 노루 등은 생약제로서 귀중한 동물들이다.

2. 조류(새들)

할미새류, 박새류, 동고비류, 찌르러기류, 찌르레기류, 개구마리류, 회파람새류, 쥐새류, 제비류, 딱다구리류, 두견류 등은 농림업에 리익을 주는 대표적 조류들이다.

례컨대 제비는 파리를 잡아 먹는바 보통 한 마리의 제비(새끼와 어미 제비를 합하면)는 하루에 700 마리의 파리를 잡아 먹는다. 파리 한 마리의 후손은 5개월이 지나면 76억 마리로 번식된다. 만일 제비가 파리를 잡아 먹지 않는다면 76억에 700을 승하는 엄청난 수자에 달한다.

또 다른 실례로 소채에 막대한 해를 주는 진디물을 새들이 잡아 먹지 않고 그냥 둔다고 가정한다면 1년 동안에 지구의 전 표면을 엷은 층으로 덮을 정도로 번성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새들은 해충을 잡아 먹는데 결정적 역할을 논다.

이외에도 부엉이류들은 병을 매개하며 식량을 좀 먹는 쥐를 잡아 먹는다. 부엉이는 한 해 여름 동안에 들쥐 1,000 마리를 잡아 먹는다. 쥐는 한 해 여름 동안에 알곡 1키로그람을 먹고 산다. 결국 부엉이는 한 해 여름 동안에 알곡 1톤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된다.

또한 오리, 기러기, 메닭, 꿩 등은 우리에게 육류를 주고 있는바 그 중 꿩은 약 1키로그람 내외에 달하는 육류량을 공급해 준다.

동시에 이 새들이 가지고 있는 우모는 인민 생활의 장식용으로도 쓰이며 외화 획득의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

유용 동물 자원을 어떻게 보호 증식 시킬 것인가

익조를 보호 증식하기 위하여서는 공원, 가옥 주위, 과수원 및 산림 속에 인공 소상을 가설하여 유인 증식시켜야 하며 산업 조류 리용에 있어서는 수렵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렵은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수렵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또한 짐승들의 번식과 발육 시기에는 사냥할 수 없으며 특히 모피용 짐승들은 모피의 질이 좋은 겨울과 수렵 규정에 제정된 시기외에는 잡지 말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옛날부터 중요한 수렵 원천으로 되여 왔고 광범히 분포되여 있는 꿩, 노루, 복장 노루 등을 증식시켜 그 자원을 확고히 조성하기 위하여 정령에서 지적한 바 대로 5년간 그 수렵을 금지하여야 한다. 만일 5개년 동안 한쌍의 복장 노루가 늑대나 승냥이한테 먹히우거나 기타 사고로 죽지 않고 순조롭게 번식한다면 상당한 수로 증가된다. 즉 복장 노루는 한번에 새끼를 2—3마리를 낳으므로 평균 세 마리씩 치고 새끼 밴 암컷의 복장 노루 한 마리가 5개년 되는 1963년 겨울에 가서는 100 여 마리로 증가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특산종이며 전 세계 학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클락새》와 고급 모피와 귀중한 약재로 되는 사슴, 검은돈, 누른돈, 수달 등은 일제 통치 시기의 략탈적 수렵으로 그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였거나 거의 멸종 상태에 있으므로 그 자원을 적극 재건하기 위하여 수렵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야생 조류의 둥지 또는 알을 털거나 새끼를 잡는다든지 짐승의 굴을 파괴하거나 또는 굴에 불을 때여 잡는다든지 혹은 치코를 놓거나 또는 독약, 극약, 폭발물, 마취제 등을 사용하여 수렵하는 현상을 철저히 금지하여야 한다.

야생 산수류(족제비, 오소리, 너구리 여우 등)들은 그 포획을 조절하며 고가한 모피수들인 노루까, 온다뜨라, 은색



검은 여우 등의 사육 시험을 조직하며 점차 우리 나라 풍토에 순환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업이다.

이와 함께 수산 자원의 보호 증식을 위하여서는 수중에서 유독물이나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고기 알을 채취하거나 내수면을 말리여 고기를 잡는 일들을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어족 보호구를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는 일체 고기 잡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수산 자원의 확고한 조성을 위하여서는 연해 어업에만 치중하는 경향을 퇴치하고 원해 어업을 발전시켜 연해 및 원해 어업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 나라의 광대한 천해와 간석지를 리용하여 곤포, 김, 굴, 미역, 연초, 이곡조, 대합, 바스레기, 생복 등 조개류, 해삼, 갈미 등 천해 양식 사업을 발전시키며 국내에 산재하는 하천, 호수, 저수지 외에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는 논판을 잘 리용하여 잉어, 붕어, 숭어, 황어, 칠색 송어 등 양어 외에 초어, 백련어, 황연어, 청어(담수어) 등 양어를 결합시킴으로써 수면의 집체적 리용률을 높이며 단위 면적당 생산률을 현저히 증가시켜야 한다.

유용한 식물들

1. 식용 식물로서는 과수, 장과류와 산채류를 들 수 있다. 즉 열매를 먹거나 음료로 가공해서 마시는 머루, 다래, 벚, 들쭉, 오미자와 산간 지대에서 부식물로서 대량 리용하고 있으며 영양가도 많은 산채류는 도라지, 더덕, 고사리, 고비, 참나물, 드릅 등이다.

2. 약용 식물로서는 강장제 및 보신제로서 명성이 높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인삼을 비롯해서 건위제로 이름난 왕대황, 정력제와 해열제로 리용되는 황기 및 기타 다른 약제로 많이 리용하는 작약, 룡담, 세신, 시호 등이 직접 치료제로서 다량 사용되고 있다.

3. 섬유 문제 해결과 기타 제지 공업에 널리 리용되는 섬유 식물로서는 줄기의 인피 섬유를 리용하는 노박덩굴, 피나무, 화살나무, 흠싸리, 고삼피, 쐐기풀, 한삼덩굴과 팔프 원료로 되는 갈, 달 등을 들 수 있다.

4. 우리들의 문화 생활과 식료 가공 공업의 향신료로서 다량 리용되는 향료 식료로서는 꽃을 리용하는 라이락, 해당화, 아까시야, 은방울꽃과 줄기나 잎 또는 열매를 리용하는 누운측백, 생강나무, 초피나무, 분지나무, 노간주나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향료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함이 없이 국내 자원으로 해결함에 이상의 것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5. 유지 식물로서는 도꼬마리, 딱총나무, 귀중나무, 싸리, 개암나무, 오수유 등의 열매를 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염료 식물, 사료 식물, 당료 식물, 밀원 식물 등이 있다.

우리 나라 식물계에는 인민 경제 발전에 귀중한 의의를 가지는 각종 식물들이 수많이 있으므로 그를 보호 증식하며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동시에 인민 생활에 리용될 수 있는 온갖 식물 자원들을 계획적으로 채취 리용하며 보호 증식하는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유용 식물들을 어떻게 보호 증식시킬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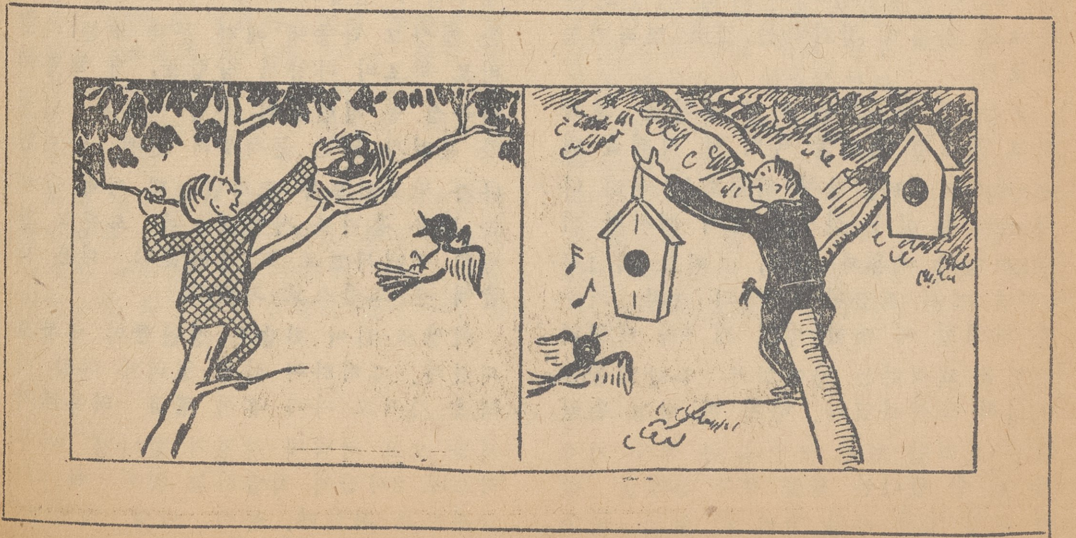
우리 나라의 특산종인 왕대황, 금강국수 나무와 세계적 명산물인 산삼 등은 귀중한 약재이다. 그러나 일제 시대에 착취에만 치중되고 보호 증식 대책이 없었으므로 그 자원량이 축감된 현실적 조건에서 허가없이 채취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하면서 인민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공원수와 가로수 및 풍치림, 해안 방풍림, 어류 보호림, 토지 보호림, 토사 방지림, 수원 함량림, 학술 연구림, 고적 보호림, 교통 보호림 등 특별 보호림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는 금지 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유용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며 증식 시킬 데 관하여》 채택된 정령을 받들고 조국의 자연과 자원을 더욱 아름답고 풍부하게 할 것이다.

과학원 자연 자원
조사 연구소 제공





2만명의 대렬에 들어 서기 위하여

판문군 월정 농업 협동 조합
민청 위원장 민 병림

우리 농업 협동 조합에는 120명의 남녀 청년들을 망라한 다섯 개의 영농 기술 크루쇼크가 작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영농 기술 크루쇼크는 지금 53명의 기수 응시자들을 핵심으로 농산 크루쇼크 (3개), 축산 크루쇼크 (1개), 원예 크루쇼크 (1개)로서 나누어져 운영 된다.

물론 아직도 운영상 부족점이 많지만 우리 조합이 처한 형편으로 볼 때 기수 응시자 대렬을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에는 과거 리 승만 도당의 통치 시기에 청년들의 대다수가 학교 문전에도 못가 보았던 관계로 초고중을 졸업한 청년은 많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떤 동무는 《인민 학교 정도의 지식밖에 소유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기수가 될 수 있는가?》 고 하면서 기술 크루쇼크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였다.

리 민청 위원회는 이런 정형을 포착하고 광범한 청년들 속에 당 정책을 해석 침투시켰다. 민청 위원회는 우리 나라 농촌의 금후 전망과 당이 제시한 기술 혁명의 내용과 의의, 그리고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2만명의 기사 기수를 양성할 데 대한 민청 제 4차 대회의 결정을 해석하는 강연회와 좌담회들을 광범히 조직하였다. 한편 리 민청 위원회는 노력만 하면 누구나 다 기수 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평북 룡천군 신평 농업 협동 조합 청년 문 재준 동무와 기타 다른 동무들의 실례를 들어 가면서 꾸준히 해설하였다.

그런 결과 청년들 속에는 배워야 하겠다는 열의가 점차로 높아 갔다. 이런 때 싱싱하게 자라던 논판의 벼가 원인을 모르게 갑자기 새빨갛게 죽어가기 시작하였다. 누구 하나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애타고 있을 때 군에서 파견되여 온 농산 기사에 의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리 민청 위원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설 사업을 한 결과 모두다 기술을 배우겠다는 결심을 한층 더 굳게 하였다. 이리하여 영농 기술 크루쇼크에 광범한 청년들이 망라되게 되였다.

크루쇼크의 학습 방법은 주로 자습을 기본으로 하고 각자가 연구 발표회에서 토론하게 한다. 학습은 생산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고 있다. 례하면 봄에는 랭상모 락종에 대한 문제 또는 자급 비료 확보의 다양한 방법들, 병 해충의 해독성 등 청년들의 사업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부터 먼저 준비했다가 발표하도록 조직했는데 이런 문제는 많은 흥미를 자아냈으며 토론도 활발히 진행되였고 또 청년들의 리론 학습에 큰 도움으로 되였다.

이렇게 하여 학습은 청년들의 생활로 되였다. 그리하여 아침 일터에 나갈 때 책을 가지고 나가 휴식 짬을 리용해서 책을 보고 저녁에 작업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2시간씩 학습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되였다. 특히 녀성 청년 민경자 동무는 하루 꼭 4시간의 학습을 보장하고 있다. 경자 동무는 회의나 강연회가 있은 날에도 자는 시간을 쭈리고서 학습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때 동무들이 만류하면 《그만큼한 노력도 없이 어떻게 기수가 될 수 있어요?》 하면서 학습을 계속하군 한다.

우리 농업 협동 조합 영농 크루쇼크에 망라된 청년들의 일반 지식 수준은 아직 낮다. 이런 사정은 이들에게 일반 과목 특히 화학, 수학, 로어 지식 수준 제고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였다.

리 민청 위원회는 리 당 위원회가 발기하여 조직한 야간 청년 학교 운영을 적극 방조하여 이에 대상 청년들을 광범히 참가시켰다.

이와 함께 리 민청 위원회는 과목별로 되는 지도를 조직하였고 또 응시자들의 발기에 의해서 응시하기 얼마전에 응시자들의 공동 합숙을 조직하여 집체적 학습과 토론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도록 방조하였다. 이와 같은 대책은 응시자들의 학습을 방조함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열매는 지난해 2월에 있은 기술 검정 시험 결과가 잘 보여 준다. 크루쇼크원 27명이 응시하였는데 전 과목 합격자 1명, 3과목 이상 합격자 26명을 내였다. 인민 학교를 졸업하고 5과목을 합격한 녀성 청년 민경자 동무를 비롯하여 인민 학교 졸업생이 10여명이나 3과목 이상의 과목에 합격하였다.

이런 성과들은 아직 기술 크루쇼크에 망라되여 학습을 하면서도 응시에 선뜩 나서지 못하는 동무들에게 큰 고무로 되였는바 13명의 청년들이 자진하여 응시 대렬에 참가할 것을 지원하였다. 금년 7월에 있을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 응시 대상자 수는 53명에 달한다. 리 민청 총회에서는 7월에 있을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에 전 과목 합격자 10명, 8과목 합격자 10명, 5과목 합격자 13명, 나머지 20명은 3과목 이상의 과목에 합격할 것을 한결같이 결의하였다.

청년들의 이러한 결의 실천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리 민청 위원회는 일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우선 로어와 수학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하여 약한 고리로 되여 있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한 개별 담당 지도를 면밀히 조직하였다. 청년 시험 포전 작업반장인 김 병유 동무 (이 동무는 기수 검정 시험에서 4과목을 합격하였다)에게는 청년 시험 포전 작업반내 13명의 청년들을 개별적으로 담당 지도하여 모두다 3과목 이상의 과목에 합격하도록 책임지웠다. 또한 리 민청 위원회는 지난번 응시 준비 시기의 경험을 살려 2월 하순부터 응시자들의 합숙을 조직하고 매일 집체적으로 학습과 토론을 조직하고 있다. 한편 리 민청 위원회는 이 사업을 당면한 영농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고 있는바 청년들은 서로 경쟁하여 자급 비료를 생산함으로써 2월말 현재로 자급 비료 생산 과제 67,117톤을 초과하여 확보하였다.

지금 우리 조합 기술 크루쇼크에 망라된 청년들은 모두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내에 빠짐없이 민청 4차 대회에서 결의한 2만 명의 기수 기사 대렬에 들어 섬으로써 농촌의 기술 문화 혁명에 기여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정 론

공상과 대담성

김 병 훈

사람은 항상 공상을 한다.

더군다나 청년들의 공상은 크고 대담하다. 행길을 막고 물어도 청춘 시절에 공상 없이 산 사람이란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래일과 공상! 이것으로 청년은 자기의 생활에서 활기를 띠며 랑만을 느끼며 산다. 만일 청년이라는 이 힘과 랑만에 찬 개념에서 공상과 대담성이라는 내용을 떼 낸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그만치 청춘의 공상은 크고도 많으며 귀중하다.

이 공상은 얼핏 보기에 아주 허망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공상 없이는 못산다.

인류의 공상은 그 어느 것이거나 력사의 품 속에 태아처럼 배태되였다가 조만간 만삭이 되여 높이 울음 소리를 지르며 태여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는 우리 나라에서 《어제'날의 공상은 오늘에는 리상으로 변하고 또 이 리상은 래일에는 현실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셨다.

인류는 어느 때엔가는 물 속에서 자유로이 헤염치는 물'고기를 부러워 했다. 그러나 어언간 사람은 잠수함을 만들어 바다를 정복하였다. 또한 창공을 나래치는 수리개처럼 푸른 하늘에 날아 올랐으면 하던 인류의 애절한 꿈도 드디여 비행기를 낳고야 말았다. 그 밖에도 라지오, 기차, 자동차, 전기…등등 공상과 실현을 말해 주는 모든 실례들을 일일이 례거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오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나가는 인민들과 청년들 보다 더 크고 많은 꿈을 꾸며 그 공상들이 지금처럼 날마다 시간마다 활짝 피여난 적은 인류 력사에 일찌 없었다.

몇 십년 전만 하여도 사람들은 살기가 차라리 죽기 보다 괴로운 이 세상에 달 나라에나 별 나라에 가면 락원이 있으려니 생각하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동경하였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칼.맑스가 《공산당 선언》을 선포할 때 구라파에서 공산주의는 《유령》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은 벌써 그 달 나라와 별 나라에로 붉은 행성이 첫 인사를 드리며 날아 갔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념원이며 공상이던 공산주의에 대한 꿈은 별도 달 나라도 아닌 여기 지구 우에 인류의 목전에서 실현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 우리 공산주의 시대— 공산주의자들의 시대란 가장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줄기찬 공상의 시대이며 그의 실현의 시대인 것이다.

칼. 맑스, 에프. 엥겔쓰, 레닌, 김 일성 원수… 이 위대한 령수들은 우선 위대한 공상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준엄한 자본주의의 생지옥 속에서 인류의 리상인 락원을 내다 보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불요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김 일성 원수는 곤장덕 높은 벼랑 우에 올라 서서 흑운에 휘감겨 누운 조국 산천을 바라보며 무엇을 공상했던가!

—뜨락또르와 자동차가 전야를 달린다. 온 강산이 고압선으로 그물 같이 덮혔다. 거창한 공장들, 수풀 같은 굴뚝들이 연기를 뿜는다. 수천년 쓰고 살던 오막살이 대신에 궁궐 같은 고층 건물이 즐비한 푸르고 넓은 거리가 일떠 서고 비단 옷 입고 혈색 좋은 청년들이 희희 락락 거리를 활보한다… 바로 이렇게 억년 무르익을 인민의 락원을 꿈꾸었던 것이다.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 위대한 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우리 나라에 실현하기 위하여 천신 만고를 극복하면서 피어린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오늘 이 락원은 우리 눈 앞에 있다.

사막에 꽃을 피웠으면 하는 것은 얼마 전만 하여도 공상이였으나 지금은 쏘련 땅 사막 지대에서는 흰 목화 꽃이 만발했다. 몇 년 전만도 사철 가물을 모르게 하는 푸른 생명수라는 것은 열두 삼천리'벌 농민들의 공상이였으나 지금은 연풍 저수지의 푸른 물'줄기가 넓은 벌판을 적시고 있다.

두 해 전에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개척자의 꿈을 안고 험한 송남 산'골짝에 첫 삽을 넣었으나 오늘은 벌써 검은 보배를 캐내고 있다. 이 탄광의 김 명화 동무는 사람의 힘을 대신하여 기계가 혼자 굴진, 채탄, 운반, 동발 작업 등을 한꺼번에 다하는 기계를 공상했고 그리고 만들어 놓았다.

함북 어랑군의 서 필구 동무는 저 혼자 벼'단을 물고 들어가 탈곡 작업을 다하는 기계를 공상했는데 끝내 만들어 가지고 전국 농촌 청년 기술 꼰페렌치야에 올라 왔었다. 콘베아가 벼'단을 물고 탈곡기 통 안으로 들어 가면 속에서 저절로 탈곡되여 또 스스로 1, 2 등 알곡으로 선별되여 가마니에 떨어지며 북데기는 따로 나오고 벼'짚도 따로 가려 진다. 이리하여 수만 로력 공수로 두석달 걸리던 일을 40여 명이 사날에 할 수 있게 했다.

실로 우리 청년 공상가들의 실례를 다 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 기적의 시대라고도 한다.

어찌하여 오늘 우리 시대엔 이처럼 모든 공상이 개화하며 무르익으며 그것이 현실로 수없이 전변되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 사회주의 제도 자체가 인간들에게 무한히 공상하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토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영원한 락원— 그 말 자체가 얼마나 혁명적이며 랑만적이며 공상적인가! 그렇다.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 그 자체가 인류의 꿈이며 그의 실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혁명가에게 공상과 랑만이 없이 무엇이 되겠는가!

그리하여 사회주의 제도, 구체적으로는 당과 인민 정권이 우리 매개 청년들의 공상을 받아 들여 그들이 그 공상을 실현할 현실적인, 물질적인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공부가 필요하다면 공부를 시켜 주며 기술이 요구된다면 기술을 배워 주며 기계면 기계, 기자재면 기자재…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꿈의 실현을 위해서 아낄 것은 우리 제도 하에선 아무 것도 없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교시는 바로 이것을 증명해 준다.

옳게 공상하기 위해서는 공상과 망상을 갈라 볼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 누가 오뉴월 능달 아래 누워서 옷이 저절로 와 입혀 지고 맛 있는 음식이 하루 세끼 제 발로 입에 걸어 들 수 없겠는가 생각하다면…





야간 기술 전문엔 가지 않고 초저녁부터 합숙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보며 기사가 되여 가지고 굉장한 창안을 해서 온 세상 사람들과 처녀들이 입을 딱 벌리게 할 꿈만 꾼다면…

동무들, 그게 진정한 공상이겠는가? 아니다! 그것은 망상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운명이 영원 무궁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우둔하고 무지한 망상이다.

공산주의자들의 공상— 이것은 인민의 행복을 지향하며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아끼지 않는, 나가서 붉은 피까지 바칠 수 있는 자기 희생의 정신에서 나오는 조국과 혁명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전제로 하는 혁명적인 랑만인 것이다. 그것은 땅에 발을 튼튼히 벋디디고 전진과 혁신, 발전과 비약, 전변을 지향하는, 다시 말하면 천리마라는 말로 표현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혁명적인 품성의 구체적인 한 측면인 것이다.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 오는 것, 인류의 락원 건설에 장애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뚜다려 부시고 극복하고 정복하여 락원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설 꿈, 바로 여기에 뿌리 박은 붉은 꿈이라야 공산주의자의 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라》는 수령의 교시와 같이 공산주의자의 꿈은 대담해야 하며 실천은 더욱 대담해야 할 것이다.

대담한 공상— 이는 출발점이다. 공산주의자는 그 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합법칙성, 즉 과학적 기초 우에 올려 세우며 그에 근거하여 꿈을 현실화하는 더욱 대담하고 정력적인 혁명적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김 일성 원수는 1930년대 암흑 시대에 벌써 조선 인민이 락원에 살 꿈을 꾸셨으며 그 꿈의 실현을 위해 왜놈을 소탕하고 지주 자본가를 없애고 인민 정권을 세우고 사회주의로 나가야겠다고 당시 우리 나라에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탁월한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 당을 창건하며 성숙된 인민의 혁명적 앙양을 령도하기 위한 골간으로서 항일 유격대를 조직하고 눈보라 사나운 백두 밀림에서 15 여 성상의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시지 않았던가!

자동 탈곡기며 탱상모판 문 제작기며 돼지 1년 3산이며 이 모든 기적들을 창조한 청년들의 이름 뒤에는 남이 다 편안히 자는 동지 섯달 긴 밤 눈'곱을 뜯으며 기울인 심혈이 고여 있으며 실패와 난관을 열백번이라도 뚫고 나간 혁명적 열정이 충만되고 슬기로운 지혜로 관통된 조국과 인민에의 높은 충성이 안받침되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 아름다운 청춘의 붉은 꿈과 그의 대담한 실천을 반대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은연중에 남아 있는 보수주의와 소극성인 것이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흔히 우리의 공상을 자로 재려고 하는 것이다. 어찌 우리 시대의 붉은 꿈의 크기에 한도가 있겠는가!

작년에 청년 건설자들이 해주—하성 200리 길에 철'길을 두달 반에 놓겠다니까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망상이요. 망상, 괜히 흥분해서 허장성세하지!》 하고 뒤'소리를 했다. 《무슨 수로? 일제 때두 3~4년 걸렸을걸…》 이렇게 수군거렸다.

그러나 청년들은 70 여 일만에 해냈다. 청년들은 최고 1,500%라는 놀라운



작업 능률을 올렸다.

누가 망상을 했는가? 일제 시기에 이미 인간의 능력이 다 발휘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뛰여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들 보수주의자들이 망상을 했다.

본래 인간의 능력이란 제한이 없다. 그러나 계급 사회에서 인간의 능력은 일정한 한도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붉은 행성을 띄운 사회주의 사회에 와서 인간은 비로소 무궁무진한 자기 능력의 개화를 보게 됐다. 《1,500%》는 바로 그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그러니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인 우리의 힘에 제한이 있겠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꿈에도, 그 크기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대담하게 공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자! 뜨락또르도, 자동차도 만들어 낸 우리가 아닌가! 단 다섯달 동안에 우리는 일본 놈이 조선에서 36년간에 한 관개 면적보다 3배나 더 되는 35만 여 정보의 관개 공사를 해내지 않았는가!

꿈을 꾸자! 청년들이여, 부단한 혁신, 부단한 전진과 전변,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 통일을 당겨 오며 3천리 강토에 락원을 꾸리기 위하여 더욱 대담히 꿈꾸며 대담히 실천하자!

전야에서도, 공장에서도, 광산에서도 그 어데서도 자동화된 기계가 일하는 꿈을 꾸라! 사람이 없는 공장이 공상이기만 하겠는가!

전기'줄에 뒤덮힌 조국 강산을 꿈꾸라! 모두가 기사, 기수인 그날을 꿈꾸라! 년산 3백 50만 톤의 강철'더미 우에 굳건히 일떠 선 조국을 꿈꾸며 700 만 톤의 알곡이 무르익을 전야와 5억 메터의 5색 비단이 강산을 수놓을 그날을 공상하라! 공산주의 지평선을 바라보는 그날을, 평화 통일의 그날을 공상하라!

아니 더 앞으로 나가 공상해도 좋다! 로동이 생활의 제 1차적 요구가 되여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공급 받는 날, 온 지구가 공산주의 한 기'발 아래 살며 달과 화성에로 다른 행성과 더 멀리 다른 은하수로 떠나는 비행선 창'문가에 앉은 자신을 공상하라!

우리의 꿈은 클 수록 더욱 좋다. 그러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 열성과 실천은 더욱 커야 하는 것이다.

그 모든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힘은 맑스—레닌주의가 주며 과학이 준다.

조선 로동당의 사상—김 일성 동지의 사상으로 무장하면 세상에 신비한 것도 불가능한 것도 없으며 낡거나 이미 쟁취된 것에 머므를 줄 모르며 항시 혁신과 전진을 일으키게 된다. 당의 혁명 전통을 이어 1930년대 항일 유격대처럼 난관을 극복하고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고 동지애로, 집단주의로 뭉쳐 힘을 합치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면 정복 못할 요새란 이 세상에 없다.

그와 함께 과학과 기술을 배우고 련마하자! 옛날엔 힘장수가 범을 잡았지만 오늘은 과학과 기술이 별 나라로 날아 갔다. 질통을 지고 달음박질해 가지고는 좀체로 빨리 우리 꿈을 실현할 수 없다. 과학과 기술이 기계를 만들어 그 흙을 실어 가게 해야 할 것이다.

붉은 사상에 높은 과학과 기술, 이렇게 합치면 세상에 정복 못할 그 어떤 높은 공상의 봉우리도 없으며 밝혀 못낼 비밀도 없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함으로써 천리마의 고삐를 더욱 세차게 나꿔 채서 젊은 혁명적 랑만의 나라, 공산주의 지평선으로 질풍처럼 내닫자!



체육 스포츠 사업의 군중화를 위한 당 정책을 관철시키자!

리 학림

최근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청년들 속에서 군중 체육 사업을 발전시키며 스포츠 기술 수준을 제고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 근로자들과 특히 청년들을 건전한 체력을 소유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단련 육성 할데 대한 우리 당의 깊은 관심과 심심한 배려의 또 하나의 표시이다.

건전하고도 대중적인 체육과 스포츠 사업은 젊은 세대들을 완강하고도 락천적인 사회주의 건설자로, 불요 불굴의 조국 보위 투사로 준비시키는 기본 수단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체육은 지배 계급들의 향락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체육과 스포츠 사업과는 달리 광범한 근로자들의 체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자기의 체력을 향상 시키는 것은 결코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위업에 더 잘 복무하기 위한 애국적 임무이다. 청년들은 우선 우리 나라 스포츠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이에 대한 당 정책을 정확히 인식하고 군중 체육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군중 체육 사업의 기본 형태로 되는 것은 인민 체력 검정 사업이다. 지난 년도에 함북도 김 책 제철소와 평남도 은산군 유정리 내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청년들은 인민 체력 검정 사업이 가지는 목적과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인민 체력 검정의 준비적 훈련과 수검에 자각적으로 참가 하였다.

그리하여 김 책 제철소 내 청년들은 참가 대상자의 52.4%가 합격하였으며 또한 유정리 내 청년들도 전원이 참가하여 수검 대상자의 76.6%가 합격하였다. 그들의 체력과 생산 성과도 일층 제고 되였다.

반면에 함북도 유선 탄광, 강원도 문천군 내의 과반수 이상의 청년들은 인민 체력 검정 사업에 정상적으로 참가하지 않고 있다.

민청 중앙 위원회 제 3차 전원 회의는 전체 민청원들이 인민 체력 검정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청년들은 인민 체력 검정의 수검과 훈련 사업을 전 년중적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힘든 종목을 집중적으로 반복 훈련하며 매개 종목별로 되는 반복 수검 사업에 적극 참가 함으로써 임의의 급수에 합격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3월, 6월, 8월, 10월의 둘째 주간의 《인민 체력 검정 주간》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조직적이고

도 계획적인 훈련들을 계단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인민 체력 검정 1, 2급에 합격한 청년들은 개별적 체육 종목의 기능을 소유 하도록 정상적인 스포츠 훈련을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매개 청년들은 최근 1~2년 내에 1~2개 종목 이상의 스포츠 기술을 소유한 유급 선수가 되도록 일상적 훈련을 강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매개 청년들은 체육단에 적극 망라되여 체계적으로 체조, 륙상, 수영을 비롯하여 씨름, 널뛰기, 그네, 궁술 등과 축구, 롱구, 배구, 탁구, 권투, 레스링 등 운동에 참가하며 특히 육체 단련의 기본 종목들인 육상, 체조, 수영 운동에 광범히 참가하여야 한다. 육상, 체조, 수영은 모든 스포츠 사업의 기초이며 청년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단련에 있어서 가장 운동량이 많은 종목이다. 더욱이 이 종목들의 기초적 훈련이 부족하고서는 임의의 스포츠 기술도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청년들은 매일 1시간 정도로 체육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며 다종 다양한 경기 종목들로써 체육일과 휴식 시간을 리용하여 친선 시합, 기록 대회, 지역별 대항전, 통신 기록 경기 대회 등의 체육 경기들을 수시로 조직하며 집체적으로 되는 달리기 운동, 산보, 등산, 유람, 야유회, 조기 체조들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군중 체육 발전에서 중요한 수단인 체육 시설들과 기자재들을 정비 확장하는 사업에 청년들이 적극 참가 하여야 한다. 청년들의 사회적 로동으로 공장, 기업소 부근과 합숙 또한 민주 선전실 부근 부락내에 소운동장, 기계 체조장, 씨름터들을 설치하며 공중 시설들인 경기장, 체육관을 비롯한 체육 시설과 기자재들을 애호하고 잘 보관 관리하며 그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끝으로 청년들은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 스포츠 사업을 보건 위생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자체의 발육 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정할 것이다.

이리하여 전체 청년들은 체육과 스포츠 사업의 군중화와 그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킬 것이다.



오물 처리

봄철에는 겨울 동안 얼어 붙었던 오물'더미가 녹아 내린다. 때문에 오물'더미를 되는 대로 쌓아 놓고 처리하지 않는다면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보기에도 매우 아름답지 못할 뿐 아니라 병균의 발현지로 파리를 발생시키게 된다. 반면에 오물'더미를 깨끗이 정리한다면 전염병의 매개물인 파리나 쥐의 번식을 제때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농산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비료로 유익하게 리용할 수도 있다.

오물 수집을 위한 변소, 가축사, 구비 적치장, 재우리 및 쓰레기통 등은 주택으로 부터 떨어진, 사용하기 편리하며 쉽게 청소 소독할 수 있는 곳에 유해 곤충이 침입하거나 번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변소를 위생적으로 시설하는 것은 기생충성 질원과 장내성 전염병의 병균과 파리를 박멸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때문에 위생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미 작성된 규정에 철저히 립각하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우리는 나무, 벼'짚 또는 기타 가연성 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농촌에서 특히 필요하다.

그러나 만일 재를 야외 아무 곳에나 버린다면 바람에 날아나 주택 주위에 흩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한 재우리를 만들고 그 우에 반드시 지붕을 설치하여야 하며 재우리의 위치는

봄철의 농촌

변소 부근에 정하고 그 면적은 4,56 평방메터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돼지우리

돼지우리는 우리 농촌에서 거의 모든 주택에 설치되여 있는바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많은 돼지우리들이 땅을 약간 파고 그 주위에 돌 또는 나무를 쌓아 올리고 간단한 지붕을 한 구조로 되여 있다. 때문에 거기로 부터 나온 구비가 돼지우리에서 오래'동안 저장되게 되며 바닥은 계속적으로 오물을 흡수하게 되므로 항상 습하고 어지러울 뿐 아니라 악취와 파리 발생의 근원지로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돼지우리의 위치를 될 수록 주택과 멀리 하고 돼지우리 바닥은 땅의 표면 보다 높게 하며 오물이 땅 속으로 스며 들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주택 표준 설계에 의하면 돼지우리 면적은 5,76 평방메터, 유보장은 5 평방메터로 예견되여 있다.



위생 시설 개조

돼지우리는 매 주택마다 만들어 놓는 것 보다 가능한 대로 주택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중하여 건설하는 것이 위생적이며 합리적이다.

우물 개조

우리 나라 농촌에 아직 전반적으로 수도가 설치되지 못한 조건 하에서 우물을 개조하여 질이 좋고 량적으로도 충분한 음료수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깊은 지하에서 나오는 물은 수질이 좋은 것으로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하여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우물물의 원천인 지하수는 지하 2메터로 부터 수십 메터 깊이에 존재한다. 좋은 질의 우물물을 얻기 위하여서는 땅의 표면이 오염되여 있지 않는 변소, 가축사 및 퇴비장으로 부터 25메터 이상 떨어진 곳에 우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물이 깨끗한 대로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물 방틀을 땅 표면에서 70~80 센치메터 정도의 높이로 설치하고 우물 벽과 밀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물로 부터 반경 0.5메터 너비의 우물 주위를 1~1.5메터 깊이로 파내고 거기에 부드럽고 건조한 점토를 다져 넣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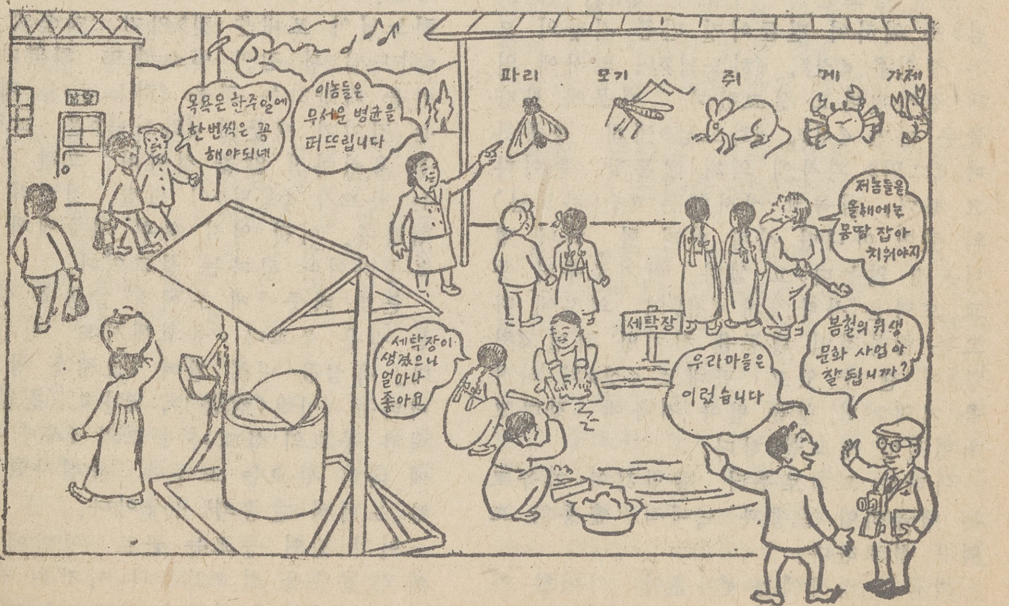
그리고 우물 주위는 다소 높게 하고 반경 3~5 메터 정도의 너비까지는 경사지게 해야 하며 경사 끝에는 도랑을 파서 우물 주위의 오수들이 잘 빠지도록 하여야 한다. 우물 주위를 세멘트로 포장하면 더욱 좋다.

비나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물 우에는 지붕을 만들고 거기에 활차식 공동 드레박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물에는 뚜껑을 해 두고 물'동이를 땅에 놓지 않도록 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우물 바닥은 돌과 모래를 쌓고 우에 세멘 콩크리트를 하며 철관을 1~2개 정도로 삽입하여 물이 철관을 통하여 올라 와서 고이도록 하는 것이 리상적이다. 우물을 청소할 때는 철관을 막고 콩크리트 바닥 우에 고인 물을 퍼낸 다음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철관 마개를 열어 놓으면 된다.

만일 박우물인 경우에는 비'물이 들어 가지 않도록 뚜껑이나 천장을 하고 물을 직접 퍼낼 것이 아니라 철관 또는 기타 로관을 관통시켜서 흘러 내리는 물을 받아 쓰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우물은 계절마다 한번씩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대청소를 하고 청소를 한 다음에는 깨끗한 물로 밑 바닥을 씻어 버리고 소독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교 도덕의 반동성

백 원 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곧 착취 계급이 근로 대중을 착취 억압하는 정신적 도구라는데 있다. 이와 마찬 가지로 모든 종교가 설교하는 도덕의 계급적 본질도 동일하다.

종교 도덕은 철두 철미 착취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그들의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반동적인 도덕이다.

종교 도덕은 노예적 굴종을 설교한다

어떤 종교든지 사람은 《신》, 《하느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만큼 사람의 모든 생활은 《신》, 《하느님》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교한다. 때문에 사람들은 다만 《신》, 《하느님》에게 복종하며 《그의》 의사에 의해 행동할 뿐이라고 한다. 기독교 성서에는 《주(하느님)의 뜻이 아니면 사람 머리 털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썼다. 여기로부터 종교 도덕은 사람에게 《신》의 의사에 따르는 맹목적인 행동을 하기만 하면 《천당》에 갈 수 있고 반대로 《신》의 의사를 거역하면 벌을 받아 지옥에 간다고 위협적인 설교를 한다.

이러한 교리로부터 출발하여 기독교는 맹목적인 굴종과 노예적 순종의 도덕을 설교한다.

기독교 성서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너의 것이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 천국이 너의 것이요》 라고 씌여 있다. 이것은 결국 착취 제도를 옹호하기 위해서 근로 대중에게 어떠한 착취와 억압에도 항거하지 말고 인내성있게 래세의 행복을 위하여 참으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계급 투쟁을 포기하라는 설교인 것이다.

착취자들은 자기들의 지배를 절대화하기 위해서 종교 도덕을 적극 리용한다. 그들은 착취 제도가 《신》, 《하느님》의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원한 것이라고 지꺼린다. 그리고 지배 계급은 신에 의해서 선발된 자들이며 그들은 《신》의 명령을 집행할 따름이라고 한다. 기독교 성서에는 《너의 주인은 하느님이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그를 《하느님》과 같이 믿으라고 하였다. 주인을 배반하는 것은 《하느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런 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천벌》이 내릴 것이라고 위협한다. 이것 역시 착취 계급에게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설교이다.

근로 대중에게 노예적 굴종을 설교하는 것은 불교나 유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욕심을 내지 말며 고생을 참고 견디라는 《인욕(忍慾)》, 《인고 (忍苦)》에 대한 불교의 설교나 유교의 《사주 팔자》에 대한 설교는 모두다 착취자들에 대한 노예적 굴종의 사상이다.

이와 같이 종교는 근로 인민에게 노예적 굴종을 설교하는바 이것은 전적으로 착취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동적

도덕이다.

공산주의 도덕은 종교 도덕과는 정반대로 근로자들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을 고무하며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근로 인민들의 계급 투쟁에 복무한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인간의 의식적인 창조적 로력에 의하여 이루어 지며 착취자들에 대한 굴종으로서가 아니라 그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에 의하여 쟁취된다.

종교 도덕은 로동을 멸시한다

종교는 로동을 《신》 또는 《하느님》 앞에 죄를 지은 대'가로 받은 《벌》이라고 주장하면서 로동을 천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독교는 로동은 《하느님》 앞에서 범한 죄의 대'가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꾸며 대고 있다. 즉 인류의 신화적인 선조들인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는 《천당》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었다. 그런데 그후 이들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과 악을 인식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노여움을 사서 이 세상에 쫓겨 내려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로동을 하게 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동은 비정상적인 것이며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간주한다.

기독교가 설교하는 바와 같이 로동은 참말로 천하고 수치스러운 것인가?

착취 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잘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착취 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천한 사람으로 인정 받으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 로동을 하는 사람은 근로자인데 로동의 성과는 착취 계급이 독차지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로동이 천한 것으로 무거운 짐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로동을 천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로동 자체가 천하기 때문이 아니라 착취 사회가 그것을 천한 것으로 만든 것이다.

로동은 인류가 생존하는 기본 조건이다. 인류의 모든 물질적, 정신적 부는 로동의 산물이다. 로동이야 말로 영예롭고 신성한 것이다. 착취가 근절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로동은 참으로 고상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전환된다.

종교는 로동을 멸시하면서도 지배 계급의 착취와 리득을 보장할 것을 목적할 때는 로동을 거짓으로 축복한다.

기독교 성서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아주 그럴듯 하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자들에게 로동을 강요하여 지배 계급들의 보다 많은 리윤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례외 없이 로동은 《죄 있는 사람》이거나 《천한 사람》들 만이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놀고 먹는 착취자들의 립장을 정당화하자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사회주의 사회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원칙이 지배한다. 우리 나라에서 누가 진정한 애국자이며 사회주의 건설자인가 하는 것은 로동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종교 도덕은 민족주의를 조장하며 침략을 정당화한다

종교 도덕의 례찬자들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 《불행한 사람을 동정하라!》고 호소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신》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면서 《박애》, 《평등》의 간판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서 종교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들 간에 무원칙한 화목을 설교하여 근로자들의 계급 투쟁을 말살하려 한다. 그들은 《박애》, 《평등》의 간판 밑에서 민족 간의 분렬을 획책하며 민족주의를 설교한다.

우선 종교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교도라고 하면서 서로 대립시키며 반목을 조장한다. 종교들 호상 간에 있어서는 종교 마다 《자기의 신》만이 진정한 것이요, 다른 신은 모두 거짓이라고 하면서 《이단자》에 대한 반목을 일 삼으며 호상 시기하며 로골적으로 대립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바로 종교 도덕의 본질로부터 불가피하게 흘러 나오는 것이다.

종교 도덕은 민족의 압제자들과 침략자들을 옹호하여 침략자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려고 시도한다. 기독교의 《성서》에 쓰기를 《모든 사람은 형제》라고 하였다. 여기로부터 기독교 승려들은 《당신의 원쑤를 사랑하시요, 당신을 굴종시키는 자를 존경하시요,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요…》라고 설교한다. 그런가 하면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이단자들에게는 벌을 주라! 거기에는 한 개의 생명도 남지 못하게 하라!》 《하느님은 이단자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순되는 종교 도덕의 규범으로부터 그의 반동적 본질을 더욱 뚜렷이 찾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착취자와 민족의 압제자들에게 굴종할 것을 인민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요, 다른 편으로는 착취자와 압제자들의 탄압과 야수적인 만행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약소민족을 식민지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종교 간판을 들고 나선다는 것을 력사의 모든 경험에서 잘 알고 있다.

종교는 항상 침략자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해 준다. 례컨대 기독교 《성서》에서는 쓰기를 《두다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이요》 라고 하였다.

이렇게 호소함으로써 침략자들이 조국을 침범할 때 저항하지 말 것을 설교하고 있다. 때문에 종교는 제국주의자들의 타국 침략의 좋은 무기로서 리용되였으며 또 리용되고 있다.

종교 도덕은 녀성을 멸시하며 천대하는 태도를 배양한다

모든 종교는 남녀 불평등을 정당화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는 항상 녀성과 그 인격을 멸시하고 있다. 종교 도덕은 녀성들에게 남성의 노예처럼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설교한다. 기독교는 녀성을 완전치 못한 인간이라고 설교하며 녀성에게 대하여 남자에게 노예처럼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기독교 《성서》 창세기 편에는 《하느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그 후에 남자의 갈'비대 하나를 뽑아서 녀자를 만들었다고 쓰고 있다. 또 결혼식을 할 때 《안해로 하여금 자기 남편을 두려워 하게 하라!》라고 목사가 엄숙하게 자기의 신자들에게 설교한다.

불교에서는 녀자를 《마물》로 인정하였고 《극락 세계》에 가기 위하여 《도》를 닦는데 있어서 녀자는 방해물로 여겨 중들은 《육식 대처》(고기를 먹는 것과 처를 데리고 사는 것)를 엄격히 금하였다.

또 봉건 사회에서 봉건 량반 계급의 지배적 사상인 유교의 녀성관이 바로 《남존 녀비》의 관점이다. 유교는 남자에 대한 녀자의 절대 복종을 요구하며 녀자는 남자의 《사유물》로, 가정 노예로 얽매여 있을 것을 강요한다. 《3종지도》(자랄때는 아버지에게 복종하며 출가하여서는 남편에 복종하며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니 《7거지률》(시부모 공대 잘 못하는 것,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병이 있는 것, 말을 많이 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음탕한 것, 도적질하는 것 등)이니 하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이다.

착취자 사회에 있어서 녀성은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였으며 롱락물이였다. 그런데 종교는 입으로는 《평등》을 부르짖으면서도 녀성들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재난을 묵인했으며 그를 합리화하였다. 여기에서도 종교 도덕의 본질이 잘 드러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랑, 결혼, 가족 관계가 금전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다. 그 곳에서는 모든 것, 심지어는 인간의 량심과 사랑과 정조까지도 매매의 대상이며 녀성은 노리개'감과도 같이 롱락 당한다. 여기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머저리 같은 바보라도 돈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 아무리 못난 둔자이거나 불구자도 돈만 있으면 천하 미인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종교도 여기에 한목 끼여서 맞장구를 치고 있다.

종교 승려들 특히 기독교 승려들은 례배당을 소위 《신성한 곳》이라고 선포한다. 거기에서는 《하느님》에게 례배하며 기도를 올린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 리면에서는 별의 별 추잡한 짓을 다하였다. 승려들은 거기에서 녀성을 롱락하여 희롱하는 것을 조금도 서슴치 않았다. 지어는 순진한 어린 녀성들까지도 유인하여 롱락하는 것 조차 량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종교는 녀성들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박해를 묵인하고 옹호해 나섰을 뿐만 아니라 직접 녀성을 유린하며 롱락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에서는 녀성에게 진정한 평등과 행복한 생활이 보장된다. 여기에서 녀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평등한 권리의 소유자로 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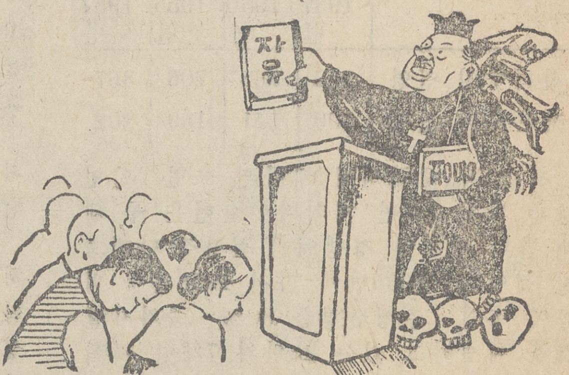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종교 도덕은 지배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복무하는 반동적 도덕이다. 종교와 종교 도덕은 인간의 의식에 남아 있는 과거 잔재 중에서 가장 근기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청년들은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종교 도덕의 낡은 잔재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종교의 탈을 쓴

침략자의

《요술》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 공업 제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할 날은 멀지 않았다

쏘련 공산당 림시 제 21차 대회에서 엔. 에쓰. 흐루쑈브는 《**쏘련 인민 경제 발전 7개년 계획이 완수 및 초과 완수되면, 그리고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경제 발전 템포가 높은 조건에서 세계 사회주의 체계에 속하는 나라들은 전 세계 공업 제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에서의 경제 발전은 자본주의 진영 나라들에 비하여 비상히 높은 장성을 보여 주고 있다.

1958년에 세계에서 사회주의 체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령토는 26%, 주민은 36%, 공업 생산은 33% 이상, 석탄은 39% 이상, 선철은 26%, 강철은 25% 이상, 쎄멘트는 23%, 전력은 18% 이상이다.

두 진영의 공업 생산 장성 템포를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937년	1950년	1955년	1957년
사회주의 진영	100	365	706	867
자본주의 진영	100	141	189	202

제 21차 대회에서 채택된 쏘련 인민 경제 발전 7개년 계획의 실현은 두 체계 간의 경제적 경쟁에서 결정적 단계로 될 것이다. 1965년에 가서 1958년에 비하여 공업 총생산량을 80% 증가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는 쏘련의 7개년 계획의 완수는 쏘련으로 하여금 일부 가장 주요한 제품의 절대적 생산에서 미국의 현재의 공업 생산 수준을 릉가하게 할 것이며 기타에 있어서는 그에 접근하게 할 것이다. 7개년 계획 말에 쏘련의 주요 농산물 생산은 총적으로나 인구 1인당에 있어서나 미국의 현 수준을 릉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쏘련에서는 앞으로 7년간 년 평균 공업 제품 장성률이 8.6%로 될 것인데 한편 미국에서는 공업 생산이 가까운 시기에 매년 약 2% 장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쏘련과 미국의 공업 총생산량의 대비가 1대 1.8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면 앞으로 10여 년간 쏘련과 미국간의 공업 총생산량 대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변화되여 나갈 것이다.

년도	쏘련	미국
1958년	1	1.8
1965년	1.8	2.1
1970년	2.7	2.3

이와 같이 쏘련이 자본주의 진영에서 최고 생산 수준에 도달한 미국의 수준을 릉가할 날은 바로 지척간에 박두하고 있다.

한편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앞으로 7년간 경제가 계속 발전할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의 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현재 일부 제품의 인구 1인당 생산량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6~7년간에 인구 1인당 주요 공업 제품 생산에서 일본을 멀리 앞서게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1957년에 가까운 15년간에 중요한 공업 부문의 생산량에 있어서 영국을 릉가할 과업을 제기하였는바 작년에 중국에서 전개된 전 인민적인 대약진 운동은 중국 인민이 이 과업을 훨씬 더 짧은 기간에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었다.

체코슬로바키야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1965년에 공업 제품 생산량을 1957년에 비하여 거의 2배로 증가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파란은 1965년에 공업 제품 생산량을 1958년에 비하여 1.8로 증가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다.

불가리야에서는 1965년에 공업 제품 생산량이 1957년에 비하여 3~4배로 증가될 것이며 몽고에서는 1965년에 공업 제품 생산량이 1958년에 비하여 2배로 증가될 것이다. 기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도 공업 생산은 높은 발전 템포로 계속 장성될 것이다.

이렇듯 세계 사회주의 체계에 속하는 나라들이 전 세계 공업 제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날은 머지 않았다.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 공업 제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한다는 것은 물질 생산에서 즉 인간 활동의 결정적 령역에서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사회주의 체계의 우월성의 시위로 되며 사회주의의 전 세계사적 승리로 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 공업 제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한다는 것은 또한 국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제거해 버리기 위한 현실적인 가능성이 조성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세계 공업 제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게 될 때 국제 정세는 평화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될 것이다. 앞으로 7년간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달성하게 될 성과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식민지 예속 국가들의 수억만 인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평화의 공고화를 위하여 진출하는 사회주의 국가들 편에 더욱 튼튼히 서서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고수하기 위하여 미증유의 힘으로 진출하게 할 것이다.

이리하여 《**아직 지구상에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기 전에 세계의 일부분에 자본주의가 보존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세계 전쟁을 사회 생활에서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조성되게 될 것이다**》(흐루쑈브)



세계 제1등급인 쏘베트 과학의 위력한 시위

—박람회에 전시된 우주 로케트의 머리 부분—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청년들의 투쟁—

최 응 섭

식민주의는 서산 락일의 운명에 빠졌다. 오늘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식민주의의 종국적 청산의 날을 재촉하면서 료원의 불'길 같이 확대 강화되고 있다.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이 가장 치렬한 곳은 아프리카 대륙이다. 오늘 지구우에 남아 있는 2,700만 평방메터의 식민지 령토와 약 1억 5천 만의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절대 다수는 아프리카에 집중되고 있다. 아세아에서 발판을 잃은 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를 자기들의 마지막 식민지 아성으로 틀어쥐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

그러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이 나라 인민들과 청년들의 치렬한 투쟁은 침략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알제리아에 100만의 병력을 투입하고 9천 억 프랑의 재정을 소모하면서 4년째나 치욕스러운 식민지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을 항거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온 알제리아 민족 해방군은 이미 령토의 3분의 2를 해방시켰으며 지난해 9월에는 림시 정부를 수립하였다.

알제리아 청년 학생들은 자국의 해방 전쟁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다.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비등된 청년들의 투지를 꺾어 보려고 회교 학생 총동맹 총비서 케미스티 모함메드를 오래'동안 구금하였다가 학살하는 만행까지 감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만행과 탄압으로도 이들의 투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지난 2월 1주일 동안에만도 알제리아 민족 해방군은 850명의 불란서 침략군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리였다.

영, 불 식민지 보호령인 카메룬에서도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청년들은 체포한 애국자들의 무조건적 석방, 모든 정당 로조 단체 청년 학생 단체의 활동 보장, 카메룬의 통일과 독립을 영, 불이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기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이 《식민지의 모범》이라 부르던 콩고에서도 청년들은 인민들과 함께 벨기의 박해를 항거하여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 1월 4일 수도 레오폴드빌에서 대규모적인 시위를 단행하였다.

이렇게 료원의 불'길처럼 일어 나는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식민주의자들은 뒷거름을 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식민주의자들은 1960년도에 가서 나제리아, 토고, 이태리령 쏘말리랜드를 독립시킬 데 대해서 약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와 중근동에서 자기들의 옛 지반을 회복해 보려고 계속 책동하고 있다.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에서의 방법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원조》라는 간판을 들고 뒤'문으로 기여 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식민주의자들의 음흉한 책동은 매 걸음마다 폭로 분쇄되고 있다. 악명 높은 《아이젠하워 주의》의 실패가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반란을 조작하였으나 결국은 이 나라 인민들과 청년들의 단결된 힘 앞에 실패하고 말았다.

애급과 레바논, 요르단에서도 식민주의자들은 수치스러운 참패를 거듭하고 있다. 미제는 신생 이라크에 대한 내정 간섭의 마수를 뻗치였으나 이 역시 배격을 당하고 있다. 얼마 전에 이라크 민주청년 동맹 주최하에 카르발라에서 집회를 연 3만 명의 청년 학생들은 미제의 내정 간섭 음모를 규탄하면서 신생 공화국을 수호할 굳은 결의를 피력한 서한을 카씸 수상에게 보냈다.

미제의 영향하에 있는 비률빈, 타이, 파키스탄 등 나라에서도 반미 기세가 류례 없이 높아 지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중근동과 동남 아세아 인민들과 청년들을 속여 넘길 수 없으며 이들의 투쟁을 억누룰 수 없음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뒤'동산》으로 간주하여 오던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식민주의자들의 지반은 송두리채 뒤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952년에 정변을 통하여 미 제국주의가 조작하였던 바티스타 독재는 지난 1월 큐바 인민들의 강력한 무장 투쟁 앞에 산산히 허물어지고 말았다. 100만의 큐바 인민들과 청년들은 하바나에서 대시위를 조직하고 큐바에 대한 미제의 내정 간섭을 배격하는 동시에 반혁명분자들을 처단할 것을 요구하여 나섰다.

콜롬비아 청년 학생들도 나라의 전반적 민주화와 독립을 위하여 미제와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섰다. 콜롬비아 청년 학생들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무력 파견을 반대하며 석유의 국유화와 교육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회를 진행하였다. 베네쥬엘라 청년 학생들도 지난 1월에 미제에 아부하는 지에네즈 독재를 반대하여 대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부라질 청년들은 석유에 대한 외국 기업체의 채굴권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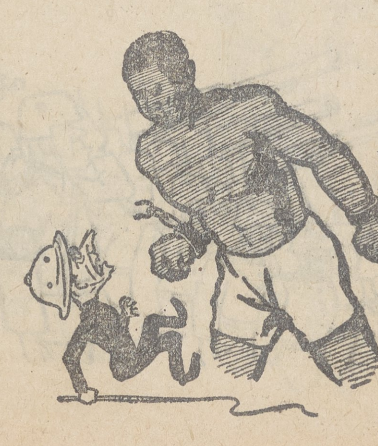
이와 같이 미제를 비롯한 외래 침략 세력을 배격하여 자국의 민족 경제와 진보를 위한 라틴 아메리카 청년들의 투쟁은 날로 치렬해 가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 진행된 라틴 아메리카 제 2차 학생 대회는 식민주의가 이 지역에 끼친 해독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식민주의 통치하에 있는 기아나, 벨리즈, 자마이카 등 지역을 라틴 아메리카 령토에 탈환할 것을 결의하였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청년들의 투쟁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진보적 청년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애급의 수도 카이로에서 진행된 아세아 아프리카 청년 대회는 이 지역 청년 학생들의 친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서로의 정치적 견해와 신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민족적 독립과 부흥을 위한 공통한 투쟁에서 서로 돕고 고무하려는 이 지대 청년 학생들의 확고한 리념은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한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으로 된다.

식민지 예속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 력량—이것은 오늘 세계적 체계로 전환된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과 함께 제국주의와 전쟁을 반대하는 세계 평화 력량의 강력한 요인이다.



만수의 세계 려행

서부 독일에서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미국을 떠난 나는 로케트 비행기 《청년 생활》호의 기수를 서부 독일로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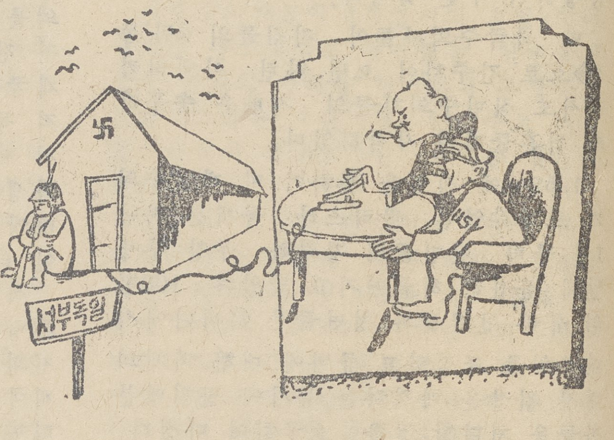
비행기에서 굽어 보는 유유히 흐르는 라인강 줄기며 루르 지방의 풍치는 예와 다름이 없었건만 서독의 온 땅 우엔 화약내 풍기는 음산한 구름이 떠돌고 있다.

그 흑운을 꿰 뚫고 나의 망원경 렌즈에 어린 서부 독일! 그것은 마치도 나치스의 깨여진 철갑모 속에 새로 지어 놓은 커다란 화약 창고를 련상케 한다.

곳곳에 있는 크고 작은 공장들에서는 《범땅크》의 제 2세들이며 장거리 포가 만들어 지고 있으며 비밀 연구소들에서는 원자 무기 생산을 준비하기에 분망하다.

아름다운 바바리야 지대와 그 외 여러 곳에서는 1959년 3월에 미국에서 공급받은 24개의 《마타도르 로케트탄》을 비롯하여 《나이크》나 《오네스트 죤》과 같은 로케트 무기 발사 기지가 설치되여 그 어마어마한 탄두들을 동쪽으로 돌려 놓고 있었고 그 사이로 웨르마흐트 옛 장군들이 인도하는 서독 군대들의 대원자 기동 작전 련습이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요란스러운 전쟁 소동과 무시무시한 대 기동 작전 그리고 잔악한 간첩 테로 히틀러 후예들이 살판치며 떠 다니는 꼴……이 모든 것들은 분명 굵직한 도화선이 달린 화약 창고에 들어 있는 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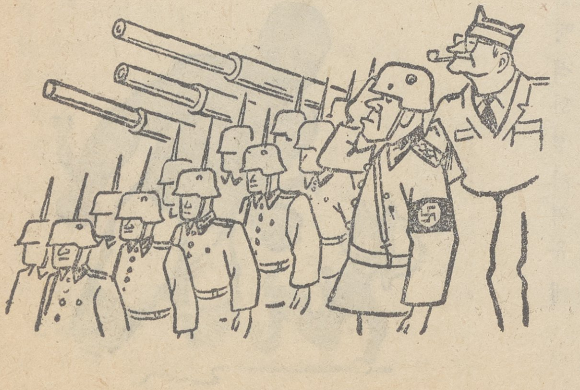
나마이트와도 같다. 그런데 그 화약 창고의 스위치는 멀리 백악관의 주인 나으리들인 덜레스, 아이젠하워의 방에 잇닿아 있는 것이다.

× ×

나는 화약 창고와 같은 서부 독일의 본에 내려 정부 외무성에 려권을 수속하러 갔다.

때마침 본 정부는 아데나우어 각하의 특별 교시를 듣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고 있었다. 회의장 문을 여니 거세한 말대가리 처럼 생긴 아데나우어의 열변이 한창이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우리는 결코 쏘련이 요구하는 것 처럼 서부 베를린을 내 주어서는 안된다. 베를린——그것은



우리의 생명이며 《자유 세계》의 전초지이다. 지금 《자유 세계》는 동쪽에서 불어 오는 거센 동풍 때문에 커다란 위험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백골이 진토될지언정 이 동풍에 굴복해서는 안되겠다.》

주석단과 객석에 앉았던 거의 모든자들은 침략이란 말이 튀여 나오자 기쁜 김에 미친듯 고함치며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기 모인 거의 모든 놈들이 과거 히틀러의 충실한 졸개들이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유명한 물리학자 이며 서독 하원 위원인 칼. 베헤르트 교수의 말에 의하면 지금 본 정부의 각급 기관들에는 20만 명에 가까운 히틀러 시대의 관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만 명의 군대의 지휘 성원들에는 100여 명의 장군들이 있는데 이들은 거의 다 히틀러 장군들이고 특히 국방상 슈트라우스를 비롯하여 호이징게르 이네 파로트이 등 70여 명의 장군들은 히틀러의 총 참모부 혹은 최고 사령부의 요직에 있은 자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독의 사법 기관에는 600명의 과거 나치스 아귀들이 둥지를 틀고 있으며 서독 외교 기관에 복무하는 자의 80%가 과거 나치스 분자들이다.





× ×

서독 군대를 원자 무기로 무장 시키는 사업에 대한 중간 검토가 있는 바로 그날 나는 함부르그에 갔다.

국방상 스트라우스가 말을 뗀다.

《정부는 1958년 3월 우리 군대를 원자 무기로 무장 시킬 것을 결정하였소, 우리에게는 이제 <마따도르>형 미국 유도 로케트와 24개의 <오네스트 죤>형 원자 로케트와 <나이크>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소. 우리는 지금 동부 독일과 체코에 가까운 높은 언덕에 어마어마한 로케트 기지들을 구축해 놓았소. 그리고 슈뚜트 할트시의 지하 연구실에서는 젬게르 교수의 지도하에 유도탄 무기가 연구되고 있소. <빨갱이>들을 모조리 잡아 없앨 그런 대량 학살 화학 무기를 제작 중이요.》

서독 군대 최고 사령관인 중장 호이징게르는 《그것은 매우 위력한 무기입니



다. 그것은 우리 〈승리의 담보〉요》하며 너털 웃음을 웃었다. 그리자 그에 따라 히틀러의 《초토 작전》의 전문가였으며 공군 사령관인 캄후베르도, 나토 중 구라파 사령관 슈파이델도 한바탕 앙상스러이 웃어대며 그들의 옛 군가를 높이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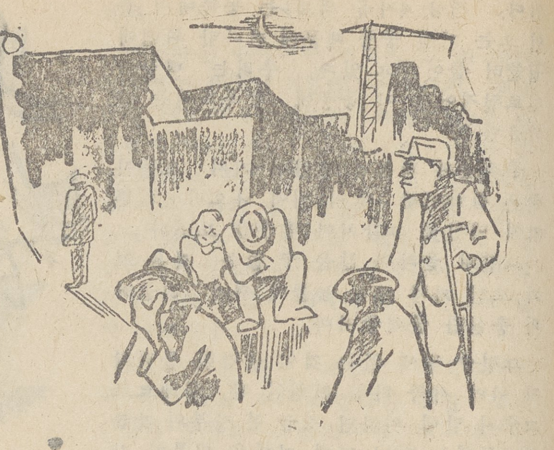
바로 이때 한 부관이 달려 들어 왔다.

《륙군상 각하! 야단났습니다. 지금 브레베르 하펜의 8,000명 로동자들이 아니 바로 지금 이 거리의 15만명의 시민들이 여기로 몰려 오고 있습니다.

〈로케트 대신에 돈을 더 달라〉고! 웨치며…》

《병사들을 동원시켜라!》

그런데 또 다른 부관 하나가 숨이 끓어질듯







《각하 부레멘에서는 8만 5천명이, 만하임에서는 5만명이, 벌레 펠트에서는 2만 5천명이, 부레메르 하펜에서는 8천…》

《그만 그만 당장 물러 갈 것!》

밖에서는 15만 시민의 격동된 물'결이 밀려 온다.

《강화 조약을 체결하라!》, 《서부 베를린 점령 제도를 철폐하라!》, 《무장을 반대한다. 나치스 장군들을 타도하라!》는 웨침이 온 독일에 울려 퍼진다.

《각하. 여기 있다간 큰 방망이에 얻어 맞겠습니다. 어서 뒤'문으로 빠집시다.》 라고 부관이 말하자 저마다 서로 꽁무니을 빼려고 좁은 문짝이 다 무너지나 문에 걸린 돼지 같은 몸뚱이들은 빠질 줄 모른다.

× ×

나는 힘부르그를 떠나 《공업의 번영》과 《만민의 복리》의 모범이라는 루르에 이르렀다.

음침한 정적, 녹쓸은 삭도들과 기중기들, 여위여 노그라진 탄부들과 절뚝거리며 거리를 방황하는 불구자들, 이것이 내가 받는 《번영》하는 공업 도시의 첫 인상이였다.

나는 식당 앞에서 량 다리를 잃고 서 있는 중년 사나이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왜 당신은 사회 보장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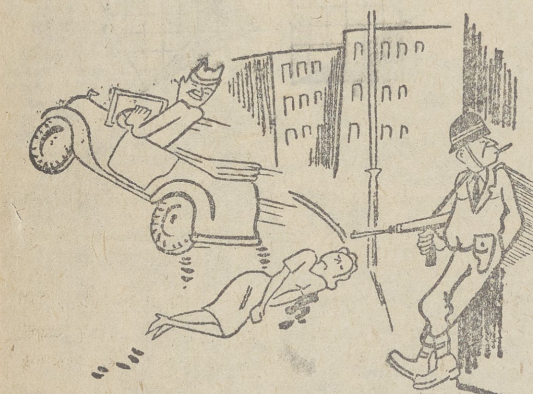
《사회 보장이 다 뭡니까! 집도 떼워서 이렇게 길'가에서 헤맨답니다. 정말 우



리 로동자들의 생활 형편이란 말이 아닙니다. 물가는 작년보다 3배나 올랐지만 임금은 절반 이상 내려 갔습니다. 루르에서는 1천 5백만톤의 석탄이 체화되여 있기 때문에 10~15만 명의 로동자들이 단꺼번에 쫓겨 났습니다. 우리가 콕쓰탄을 대주는 보호베르 폐자인 대강철 공장의 만여명의 로동자들도 일'자리를 얻자 마자 생산이 거의 중지돼서 내쫓겼습니다. 그러니 이 놈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도 다리가 이렇게만 되지 않었던들 그놈들을 때려 눕히기 위해 싸울겝니다.

이 자들은 우리의 철천지 원쑤인 과거 나치스의 충복들에게 히틀러〈전통 교양〉과 〈동구라파의 새 질서 유지〉를 청년들에게 설교하는 〈공로〉가 있다 하여 해마다 수많은 년금을 주어 〈극진한 배려〉를 돌리고 있답니다. 한가지 실례만 들어도 과거 히틀러 수용소에서 사형 당한 수 많은 사람들에게서 금'이발을 뽑아 내는 일을 전업하던 승냥이 군의 마르틴 헬링게르는 아데나우어로부터 매년 1만 마르크의 돈을 원조 받고 게링그의 부관이였던 파울 게르네르는 매월 2천 마르크씩 받고 있답니다.》





그는 오늘 밤 백여명의 자기 동료들과 함께 동부 독일로 간다는 것이다. 서독에서는 이렇게 어두운 밤길에 혜성을 바라보듯 동부 독일로 가는 로동자들의 수가 날과 달을 따라 늘어 간다. 작년 12월 한달 동안에 만도 1,000여명의 로동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그리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품으로 넘어 갔다고 한다. 금년에 들어 와서 이수'자는 2배 이상으로 장성하고 있다. 실로 이렇게 10여년 동안 서독에서 민주 독일로 이주한 수'자만 해도 약 2백 60만명이 넘는다.

× ×

나는 이튿날 서부 베를린에 도착하였다. 간첩 파괴의 소굴인 서부 베를린에는 62개 이상의 제국주의 간첩 기관들이 있고 서독에는 340개 이상의 각종 간첩 기관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이다.

이 첩보 기관에 복무하는 대부분의 자들은 미국 캥그 출신이거나 과거 나치스의 비밀 조직인 에쓰 에쓰나 국가 비밀 경찰 (게쓰따뽀)에 복무했던 장교들이라 한다.

서부 베를린이야 말로 바로 그 비인간적인 패륜이 꺼리낌 없이 버러지고 있는 중심지 이기도 하다.

미국놈들이 미친듯 모는 자동차 운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교통 사고들이 아무런 추궁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자동차 사고는 서부 베를린에서만도 매일 2~3명의 시민들의 생명을 끊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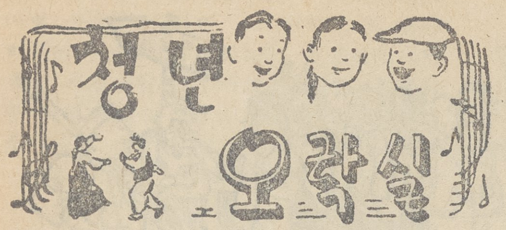
그런데 한심한 것은 이 천인 공노할 강탈자들의 그 어떤 악질적인 패륜과 타락 행위 앞에도 서독의 법률은 아무런 맥도 없다는 것이다.

오늘 전 독일 인민들이 하나로 되여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용감히 싸우고 있다.

하나로 통일된 조국의 번영을 위한 독일 인민들의 투쟁은 결코 그 아무도 막지 못한다…

나는 다시 로케트 비행기 《청년 생활》호를 타고 서독의 상공을 나른다. 눈 아래 보이는 수풀 같은 평화 통일의 기'발과 그칠 줄 모르는 통일 행진의 물'결!

평화 통일과 민족의 자유 그리고 항구한 평화를 위하여 일떠선 동서 독일 인민의 위대한 힘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2호의 답

초생 달이냐, 그믐 달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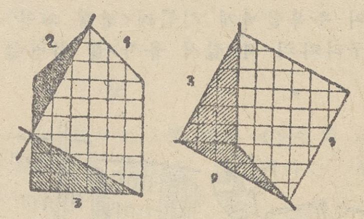
초생달이다.

강'가에서 생긴 《진퇴량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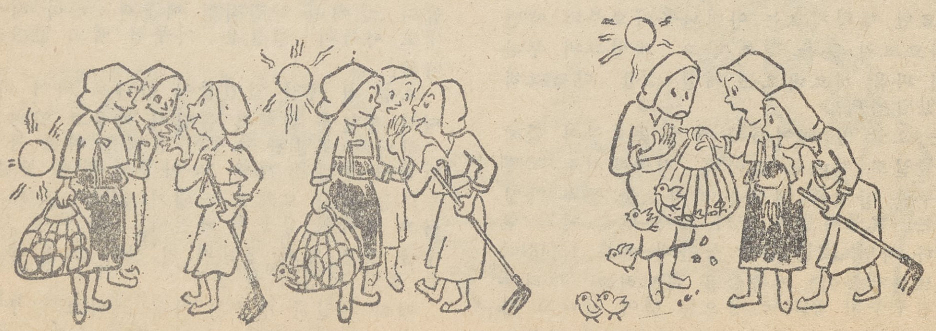
염소를 강'가에 매여 놓고 우선 양배추와 **승냥일** 싣고 건너 간다. 그리하여 양배추를 건너 편에 놓고 승냥이는 다시 싣고 건너 온다. 그 다음 염소를 돛배 뚝에 매고 승냥이는 한 손에 끼고 한 손으로는 노를 저으면서 건너 간다.

정방 4각형 보자기 만들기

그림과 같이 하면 된다.



길'가에서 잡담을 하다 보니까……





△책 소개▽

나는 다시 강을 건너 간다

저자 송 영

최근 본사에서는 송 영 작 장편 소설 《나는 다시 강을 건너 간다》를 출판하였다.

이 소설은 1930년대 압록강 연안에서 생활하던 아동들이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열렬한 혁명 전사로 육성 단련되여 마침내 혁명의 대오에서 영웅적 항일 투쟁을 전개하는 혁명 사적을 높은 예술성을 가지고 형상화한 작품이다.

민청 출판사 발행

3월은 농촌위생 월간이다

모든 변소와 우물을 완전히 위생적으로
개조하며 목욕탕을 더 많이 건설하자!

마을 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며 조국
강산을 아름답고 푸른 락원으로 만들자!

